

# 작전

2008. 05. 29

본 시나리오에는 무단복제나 발췌를 금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BIDANGIL PICTURES CO, LTD  
tel 82.2.2051.0336/0337 fax 82.2.2051.0338



135-100.. suite, 1410, hallaclassic, 824-11  
yeoksam-dong, kangnam-gu, seoul, korea

# 작전

검은 화면에 자막. 강한 비트의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본 영화는 증권가에 떠도는 풍문을 바탕으로 꾸민 이야기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나 직업은  
현실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FADE IN

## 1. EXT. 여의도 출근 풍경 - Montage Opening Sequence

화면 밝아지면 전철 문틈에 끼인 넥타이 클로즈 업.

문이 열리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사람들.

구걸하는 거지와 찌라시 아줌마, 김밥 아저씨 등을 통과해 비로소 지상세계로 나서는 넥타이 부대.  
일상적인 출근 풍경과 주식 객장의 풍경이 교차하는 사이사이 점멸하는 주가 전광판 자막 스타일의 오프닝 크레딧.

빌딩 회전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넥타이 부대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닫히는 문.

## 2. INT. 서진에셋 여의도 지점 - 낮

자막: 서진에셋 여의도 트레이딩 센터

카메라 파티션위로 붙업하면 증권사 사무실 전경이 펼쳐진다.

컴퓨터 모니터엔 주식차트가 떠 있고, 전화 받는 직원들의 목소리로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유리벽 너머 독립된 공간에서 무선 헤드셋으로 통화하고 있는 삼십대 초반의 증권 브로커 **조민형.**

한손으로 악력 단련용 고무공을 주물럭거리고 있다.

조민형

김 회장님하고야 인연 깊죠. 전화 잘 하셨습니다.

요즘 주식만한 재테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공투자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웬히 주위에서 “너만 알아~” 하면서 전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마음만 받으세요. 개미라고 들어보셨죠?

남의 말 듣고 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안타깝죠.

정보라는 게... 퍼질 땐,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모님 목소리 (O.S.)

아 그래요. 뭐 한 오천정도 해볼까 하는데...

이 때, ‘뚱뚱’ 알람 소리와 함께 컴퓨터 모니터에서 팝업창이 깜박인다.

모니터에 뜨는 글씨, ‘오메가 정보통신 하락.’ 일순간 표정이 일그러지는 조민형.

조민형 (계속)

이런 씨발...

사모님 목소리 (O.S.)

어머? 아~ 오천은 돈도 아니다~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조민형. 내선 전화기에 통화대기등이 바쁘게 점멸한다.

조민형 (계속)

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급한 미팅이 있어서...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사모님 목소리 (V.O.)

어머 어머... 김 회장한테 한마디 해야겠네. 뭐 이따위야?

컴퓨터 모니터에선 오메가 정보통신의 주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조민형 (계속)

아니라니까요! (벼락) 내가 무슨 욕을 했다고 그래요!  
아, 담대로 해요!

조민형은 신경질적으로 헤드셋을 벗어 던지고 키보드를 두드린다. 죽은 사람의 바이털 사인처럼 하한가에서 직선을 긋고 있는 오메가 정보통신의 그래프.

### 3. INT. 세종로 파이낸스 빌딩 스카이라운지 - 낮

자막: 세종로 파이낸스 빌딩 스카이라운지

웨이트리스가 양증맞은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내려놓으면 노신사와 이십대 후반의 여성, 유서연이 마주 앉아있다. 웨이트리스가 떠나길 기다렸다가...

유서연

법정관리는 제가 하루 이틀 늦춰 볼게요.  
그전에 지분은 조용히 정리하세요.  
부도... 소문나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 아시죠?

잠시 침묵. 문자 알림소리가 침묵을 깬다. 휴대폰을 꺼내 내용을 확인하는 유서연, 자리에서 일어선다.

유서연 (계속)

이틀이에요, 사장님. 막내 유학비는 건지셔야죠.

싱긋 웃으며 나가는 유서연.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중년남성에게 웃으며 인사한다.  
“어머 차관님, 안녕하시죠?”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면, 웃음기 가신 얼굴로 전화를 건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니터에선 주가정보가 흐르고 있다.  
‘오메가 정보통신’ 옆에 선명한 파란색 하락 화살표.

유서연

문자 봤어. 얼마? 칠억? 손절 가. 얼마 손해 보든 상관없어. 다 빼라고!

### 4. INT. 압구정동 피부 관리실 - 낮

자막: 압구정동 해맑은 스킨케어

피부 관리를 받고 있는 삼십대 중후반의 황종구.  
부드러운 손이 팩을 바르는데 휴대폰을 든 투박한 손이 불쑥 들어온다.

공손하게 휴대폰을 얼굴에 대주는 투박한 손.

**황종구**  
(가라앉은 목소리) 어.

벌떡 일어나는 황종구. 놀란 피부관리사가 팩을 얹는다.

**황종구 (계속)**  
(전화기를 뺏어들며) 뭐? 오메가가? 언제!

담배를 빼어 무는 황종구. 피부 관리사가 말리려 하지만 기어이 불을 붙이는 황종구.

**황종구 (계속)**  
조차장은 뭐래? 이 씨... 당장 벌크로 받아줄 펀드매니저들 섭외하고,  
명동에 전화에서 무조건 수습한다고 절대 빼지 말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한 시간을 못 비워요. 한 시간을...  
도대체 어떤 새끼가 해 처먹은 거야? 어떤 새끼가!!

## 5. INT. 장현수의 반 지하 원룸 - 낮

자막: 논현동 반지하 원룸

손바닥만 한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빛에 담배연기가 피어오른다.

이십대 후반, 장현수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있다. 장난스러운 현수의 얼굴에서 화면정지.

**장현수 (V.O.)**  
주식을 하다 보면 맨날 듣는 소리가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전하게 투자 하라는 거지.  
다 개소리다. 펀돈 쪼개서 언제 목돈 버나?  
그럼 사다리 차기라는 말은 들어봤나?  
사다리를 타고 맨 처음 꼭대기에 오른 새끼는 항상 사다리를 걸어 차서  
다른 놈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막았다.  
그게 사람이다. 그게 자본주의다.

# 작 전

## 6. INT. 중소기업 회의실 - 낮

자막: 5년 전

이력서에 붙어 있는 젊은 현수의 증명사진. 이력서 너머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양복차림의 현수.  
허름한 중소기업의 사무실. 제품박스들이 벽면에 가득 쌓여있다. 이력서를 보는 두 명의 면접관.  
책상 아래, 구두를 벗고 있는 면접관의 발가락 양말.

### 면접관 1

마케팅으로 지원하신 건 알겠는데...  
일단 현장 영업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팔다보면 회사가 만드는 물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우리 회사 제품 써 보신 적 있죠?

현수, 면접관 뒤로 쌓인 박스를 본다. '황토 정력 팬티' 라고 적힌 박스들.

### 7. EXT. 여의도 빌딩 앞 - 낮

'황토 정력 팬티' 로고가 선명한 박스를 옆구리에 끼고 있는 현수, 짜증나는 표정으로 담배를 빼어 무는데, 수트를 차려입은 젊은 사내가 증권사 건물에서 나와 현수를 스쳐 고급 외제차에 오른다.

멍하니 자동차가 빠져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현수. 휴대폰 벨이 울린다.

장현수

어. 지혁아... 진영이형이? 웬일로?... 그래 알았어...  
(끊으려다) 야! 야! 진영이형 좀 밝히든가?

### 8. INT. 섹시바 - 밤

비키니를 입은 아가씨들이 서빙을 보는 섹시바. 바에는 현수와 선배 진영이형, 그리고 동창 박지혁이 앉아있다. 정력팬티 박스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발밑에 두고 있는 현수.

진영이형

대한민국의 투자 패러다임. 이제 대세는 아이티거든.  
그래서 형이 이번에 닷컴 쪽으로 아이템을 잡은 거지.

장현수

그 인터넷 돈 안 된다고 하던데.

진영이형

참... 본질을 모른다. 요즘은 뭘 만들어서 버는 세상이 아니에요.  
돈은 주식이 벌어주는 거야!  
일단 무슨무슨 콤 간판 달고 코스닥에 올라가기만 하잖아?  
몇 십억은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러는 넌 요즘 뭘 하나?

발끝으로 쇼핑백을 밀어 테이블 밑에 숨기는 현수.

장현수

나? 뭐... 마케팅 쪽...

박지혁

상장 아직 안 했으면 후배들한테 액션가로 넘겨주고 그래봐라, 줌.

주식용어를 쓰며 들이대는 지혁을 의외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현수.

진영이형

새끼... 니가 좀 아는구나. 흠... 똥이는 못 주는데...

박지혁

그래봐야 몇 천 인데 그 정도 도 못해줘? 같이 좀 벌자.

진영이형

현수 너도 들어올래? 형이 이럴 때 동생들 한 번씩 챙겨 주는 거지.

장현수

나? 난... 생각을 좀 해보고...

박지혁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형, 재 안사면 내가 재꺼까지 가도 되지?

썩쓸한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는 현수.

### 9. INT. 현수모의 과천 주공 아파트 - 저녁

우거지, 산나물 등이 베란다에서 거실까지 쭉 펼쳐진 현수모의 과천 주공 아파트.  
장현수의 동생 준수는 나물을 다듬으며 티비를 보고 있다.  
식탁에 앉아서 잔돈을 세며 가계부를 적는 현수모.

장현수

엄마! 유산 땡겨 준다 생각하고 한 번만 밀어 줘요!

현수모

덜컹한 엄마 앞에서 아주 항을 피워라.

장준수

집요하다. 형... 엄마 진짜 돈 없어. 엄마 얘기해.

장현수

뭐? 무슨 얘기?

그제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보는 현수모.

현수모

엄마 이 집 샀다. 집 주인이 싸게 내놔서 그냥 계약 했다.  
대출 끼고 산거니까 현수 너도 주식 같은 소리 그만하고  
취직해서 생활비 보태.

장현수

(버럭) 과천 촌구석이 무슨 비전이 있다고 집을 덜컹 사!  
이 동네 죽었다 깨도 안 올라요! 엄마가 부동산을 알아?

현수모

엄만 그런 거 몰라. 집이 살기 좋고 정들면 그만이지...

장현수

그렇게 생각 하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냐!

현수모

이 모양 이 꼴이 어때서? 이제 집도 있겠다.  
아들 둘 대학까지 다 보냈겠다.

장현수

맨날 대학 대학! 요즘 대학 졸업장 누가 쳐다나 보는지 알아!  
고만고만한 대학, 고만고만한 회사, 고만고만한 아파트!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저만치 달려가는데 우린 이게 뭐냐고!  
엄만 속상하지도 않아?

현수모

속상할게 뭐 있니? 니가 부족하면 더 열심히 일해서...

장현수

열심히? 엄마, 엄만 열심히 안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야?  
죽을 똥 살아서 겨우 여기까지 온 거 아냐?  
(집을 가리키며) 이게 꼴이야!  
이 구질구질한 아파트가 엄마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똥맛다는 표정으로 현수를 쳐다보는 현수모. 신경질적으로 걸옷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나서는 현수.

현수모

어디 가? 밥 먹고 가!

## 10. EXT. 도심 길거리 - 밤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내레이터 모델들을 피해 길을 걷던 현수, 헌 책을 늘어놓고 파는 한 노점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INSERT: 헌책들을 훑는 카메라. 멋진 양복을 입은 신사가 자신감 넘치는 사진이 박힌 책에 멈춘다.  
‘오십만 원으로 시작하는 주식거래, 난 이렇게 십억을 만들었다!’

무심하게 담배 피우는 노점상의 삶에 찌든 얼굴과 책 표지를 번갈아 보는 현수.

책을 옆구리에 끼고 간이 접수대에서 가입서를 작성하는 현수.

다른 접수대에서 다른 카드에 가입하는 현수. 계속 다른 가입서에 사인하는 현수의 손 Montage.

장현수 (V.O.)

그래!... 찌질한 인생 갈아타려면 주식이 정답이다.

## 11. INT. 증권사 객장 - 낮

하락을 나타내는 초록색 숫자로 가득한 주가 전광판.

증권사 객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멍한 표정이다.

한 아줌마가 오열을 터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건 사기야!”를 외치는 아저씨.

주문서를 박박 찢는 할아버지 뒤로 장현수가 힘없이 일어나 객장을 나선다.



장현수 (V.O.)

닷컴 열풍이 닷컴 거품으로 이름을 바꾼 그해 여름,  
대박을 약속했던 선택은 필리핀으로 났고,  
약속을 믿었던 나는 한강으로 났다.

## 12. EXT. 한강다리 - 밤

한강 다리 한 가운데서 난간을 붙잡고 있는 현수. 결심한 듯 난간위에 올라선다.

장현수 (V.O.)

그날 이후 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한 장, 한 장씩 카드를 한강으로 날리는 현수.

장현수 (V.O.)

그렇다고 뛰어내리지도 않았다.  
난 억울한 게 생기면 잠도 안 오는 성격이다.

## 13. 장현수의 5년 - Montage

현대카드 CM송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가 울려 퍼지면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나오는 남녀의 밝은 모습.  
그 옆에는 현란한 손짓으로 주차안내를 하는 현수의 고된 모습.

장현수 (V.O.)

주식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동안 꼬라박은 수업료를 다 모았으면 그랜저 세 대는 뽑았겠다.

그랜저를 몰고 있는 졸린 눈의 현수. 뒷자리에는 넥타이를 풀어헤친 아저씨가 자고 있다.

모니터 앞에서 졸고 있는 현수. 모니터 옆에는 빈 컵라면 그릇과 주식 서적이 층층이 쌓여있다.  
자명종이 울리면 화들짝 깨어난다.

장현수 (V.O.)

아흡시, 전쟁은 시작된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군도 없다.  
개미, 기관, 코쟁이들까지 남의 돈 먹겠다고 덤비는 곳이 이 판이다.

배달 된 자장면을 받는 현수, 하지만 두 눈은 컴퓨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랩이 씌워진 그릇에  
자장을 붓다가 무릎에 다 쏟는다.

장현수 (V.O.)

주식에서 일 분은 영원이다.  
내가 망설이면 누군가 사버리고,  
내가 밥 먹는 사이에 팔아치우고 나간다.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당당하게 현금을 뽑는 현수. 뭇돈을 주머니에 넣고 흥겹게 은행을 나선다.

장현수 (V.O.)

고난과 오욕의 5년. 난 주식 매매로 먹고사는 데이 트레이더가 되었다.  
그래, 난 개미다.

#### 14. INT. 박지혁의 회사 사무실 / 현수의 반지하 원룸 - 낮

회사 사무실. 주위의 눈치를 보며 모니터로 주가를 보고 있는 박지혁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다.  
화면 분할되며, 원룸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주가를 체크하고 있는 현수가 전화를 받는다.

장현수

장중엔 전화하지 말랬지. 형님 바쁘다.

박지혁

나 오전에만 삼백 날렸다. 복구 좀 해주라.

장현수

너도 참 의지의 한국인이다. 그렇게 날리고 또 하고 싶니?

박지혁

인간적으로 너한테 들을 소린 아닌 거 같다.

장현수

나야 이 세계에 몰빵 한 사람이고,  
직장까지 있는 놈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사니?

박지혁

계약직 파리 목숨인거 모르냐?  
이거 올 엄마 칠순 잔치 할 돈 박은거란 말이야.  
칠순 잔치를 김밥천국에서 할 순 없잖아.

짜증난 표정으로 고민하는 현수. 애타는 표정으로 기다리는 박지혁. 침묵이 흐른다.

장현수

오메가 정보통신... 이거 백프로 작전주야.

소리 없이 환호하던 박지혁, 금세 표정 바뀌며...

박지혁

대한민국에 작전주 아닌 게 어딴냐?

화면이 삼분할 되면서 주식 차트가 보인다.

장현수

그래. 작전주 찍는 거야. 아무나 하지 문제는 타이밍인데...  
답은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풀을 보니까 애네 들 내일까지는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장 끝나기 전에 무조건 던져.  
또 욕심내다 깡통 차고 울지 말고.

박지혁  
확실한 거지?

장현수  
못 믿겠음 말아라.

박지혁  
오케, 오케. 오메가 정보통신! 땡큐다.

장현수  
야, 괜히 여기저기 떠들지 말고 혼자 먹어.

휴대폰 폴더를 접은 현수. 분할화면은 유지된다.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박지혁. 박지혁의 화면이 또 분할된다. 전화를 받는 박지혁의 매형.

박지혁  
매형? 전데요. 형만 알아요... 이거 확실한 정본데...

한가롭게 국물을 들이키는 현수. 계속 분열하며 증식하는 박지혁의 화면.  
동시에 급격하게 오르는 '오메가 정보통신'의 차트 화면.  
화면이 또 분할되면서 전화 상담을 하는 썬 2의 조민형의 모습이 들어오고...  
현수가 매도 주문을 마치면 일제히 주문을 내는 사람들. 그래프가 급격히 꺾이는 시점에서...

조민형  
이런 씨발...

CUT TO

현수의 정면 클로즈업 하나로 정리되는 화면. 썬 5의 정지 화면 연결.

장현수 (V.O.)  
한 방에 천만 원! 통장에 십억 찍는 날, 이 짓도 좋이다.

느긋한 표정으로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 현수.

## 15. INT. 빌딩 지하 주차장 - 밤

우거지상을 한 조민형, 서류가방을 들고 자신의 자동차로 걸어간다. 문을 열려는데...

황종구 (O.S.)  
목표가 백 원 남겨놓고 당했어.

조민형  
씨발! 깜짝이야.

조민형의 자동차 뒤편에 서 있던 황종구. 심긋 웃으며 담배에 불을 붙인다.

황종구

설명해봐.

조민형

뻔 하잖아. 한 새끼가 술 먹다 어서 흘렸지.

황종구

내부에서 정보가 샀다.

조민형

그래서 블링 하는 애들은 못 믿어. 아예 합숙을 시키던지. 아니면...

황종구

설거지할 펀드 매니저는 알아봤어?

조민형

요즘엔 개네들도 몸 사려서 앤드바이는 웬만하면 안 받아줄려고 그래. 손해 본거 떠넘기기가 쉽나.

황종구

펀드가 지들 돈이야? 고객 돈 굴리다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거지. 다시 꼬셔봐. 커미션 두 배로 준다고.

조민형

어떡하냐. 기존 애들이랑은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이제 못 믿지.

황종구

판을 새로 짤 거야. 베스트들로...

꿈초를 버리고 돌아서는 황종구. 천천히 어둠속으로 사라진다.

황종구 (계속)

천하의 조민형이... 물먹는 날도 있구나...

자존심이 상한 조민형, 표정이 일그러진다.

## 16. INT. 서진 예셋 여의도 지점 - 낮

상담창구 뒤편의 부장 데스크.

부장

조민형 차장, 거 알 만한 사람이 고객님의데 욕을 하고 그러면 어찌잔 겁니까. 아니 증권사 전화는 다 녹음되는 거 몰라요? 그래도 조차장이 실적이 좋으니까 이정도로 징계가 끝나는 거예요. 서비스 교육 다시 받는다 생각하고 당분간 창구 좀 보세요.

맥없이 상담창구에 앉은 조민형, 호출버튼을 누른다.

조민형

(심드렁한 목소리) 29번 고객님.

전표를 내미는 손.

조민형 (계속)  
(전표를 받으며) 출금하시게요. 어떻게 드릴까요?

장현수 (O.S.)  
현금이요.

조민형  
칠천만원 다요?

그제야 고개를 드는 조민형. 장현수가 장난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단말기를 확인하던 조민형, 얼굴이 굳는다.

INSERT: 거래내역이 뜨는 모니터 ‘오메가 정보통신 매도’

장현수  
뭘, 문제 있습니까?

조민형  
아닙니다... 최근 수익률이 좋으셨네요.

장현수  
좀 덜빡한 작전주가 보이기에 추격해서 물 좀 먹었죠.

끓어오르는 화를 겨우 참으며 현금 봉치를 준비하는 조민형.  
가지런히 쌓인 돈다발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현수. 그 중 몇 개만을 쟁긴다.

장현수  
나머진 다시 넣어줘요.

조민형  
예?

장현수  
입금 한다고요. 안 돼요?

어이없다는 표정의 조민형. 먼발치에서 부장이 미소를 지으라고 손짓한다.

현수가 지점을 나서면 조민형,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

## 17. INT. 강남 고급 한우 고기 집 - 밤

석쇠에 올라 피를 끓이며 구워지는 고기. 현수와 준수가 숯불을 가운데 두고 마주앉아 있다.  
준수에게 소주를 따라주는 현수.

장준수  
무슨 고기가 일인분에 사만원이 넘어?

장현수  
촌스럽게... 이게 꽃등심이라는 거다. 형이 사주는 거니까. 그냥 먹어.

(소주 한 모금 마시고) 엄마는?

장준수

요즘 재래시장 다 죽었잖아. 묻지 말고 집에 좀 들러라. 힘드셔.

장현수

요즘 누가 시장가나. 마트가지. 뭐... 그래도 엄만 아파트가 있잖아?  
(쓰게 웃으며) 과천이 그렇게 뜰 줄 누가 알았대니.  
요즘 시세는 얼마나?

장준수

부녀회에서 십억 이하로는 팔지 말자고 붙였던데...

장현수

야. 야. 야. 지금이 꼭지야. 엄마도 팔라고 그래.

장준수

엄마 알잖아. 절대 안 팔걸?

장현수

형은 그게 답답하다는 거야. 깔고 앉아 있으면 돈이 아니에요.  
굴려야 돈이지. 준수 너도 앞으로 생각 잘해.  
그러게 전공을 잘 끝났어야지. 미생물학과가 뭐냐. 미생물학과가.

장준수

나 공무원 시험 볼 거야.

장현수

형이 재계에 있으니까, 동생은 정관계에 있는 것도 괜찮겠지.

장준수

형, 좀... 그냥 무난하게 살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장현수

야, 먹어. 먹어. 꽃등심은 좀 덜 익었을 때 먹는 거야.  
아가씨! 여기 이 인분 더.

## 18. INT. 청담동 밤거리 - 밤

고급 수입차가 자태를 뽐내는 수입차 전시장 앞. 도로에 선 현수와 준수.

장현수

택시!

장준수

버스 안 꿇렸어. 그냥 갈게.

모범택시가 서면, 뒷자리에 준수를 밀어 넣는 현수. 준수의 무릎 위에 돈 뭉치를 던진다.

장현수

(문을 잡고 서서) 이거 엄마 용돈하시라고 그래.

장준수  
직접 드리면 좋잖아?

장현수  
아직 아냐. 때 되면 알아서 갈 테니까, 넌 시험 준비나 잘해...  
아저씨 과찬이요.

문을 닫는 현수. 택시를 보내고, 수입차에 눈길 한 번 주고, 피던 담배 던지고, 가볍게 걸어가는 현수.

## 19. INT. 지하 불법 카지노 바 - 밤

어두침침한 지하 불법 도박장. 테이블 위만 환한 조명이 비치고 있다.  
카드와 칩이 오고가는 포커 테이블. 칩칙한 아저씨들과 어울려 도박에 열중하는 현수.  
오늘따라 현수의 낯빛이 좋은지 칩들이 쌓여있다.  
현수 옆 자리가 비자 섹시한 차림의 여자가 다가와 앉는다.

섹시녀  
(현수 앞에 놓인 칩을 보며) 많이 따셨네요.

장현수  
네? (쑥스럽게 웃으며) 아~ 재수 좋은 날인가보죠.

섹시녀  
운도 실력이죠. (손을 내밀며) 미연이에요.

장현수  
(악수하며) 장현수입니다.

섹시녀가 다리를 꼬자, 옆이 터진 드레스 사이로 속살이 드러난다. 슬쩍 훑쳐보는 현수.

섹시녀  
알아요?... 운 좋은 날은 좋은 일이 자주 생기는 법이래요.

## 20. INT. 엘리베이터 안 - 밤

격렬하게 애무하며 키스를 주고받는 장현수와 섹시녀. 섹시녀의 신음소리에 현수는 더욱 흥분한다.

장현수  
(헐떡이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호텔로 가지?

섹시녀  
호텔 재미없어. 자기 회사에서 해봤어?

장현수  
회사?

섹시녀  
(열쇠를 보여주며) 지금 아무도 없어. 나 사장 책상에서 하고 싶어.

더욱 흥분해서 섹시녀의 몸을 더듬는 현수.

## 21. INT. DGS 캐피털 앤 홀딩스 사무실 - 밤

한데 영켜서 킁킁한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현수와 섹시녀. 사무실 앞에는 'DGS 캐피털 앤 홀딩스'라는 황동 간판이 희미하게 보인다. 섹시녀는 현수를 회의 테이블에 쓰러뜨리고 바지를 벗긴다. 기대에 찬 표정으로 눈을 감는 현수. 갑자기 불이 켜진다.

장현수

불은 켜지 말지.

이대리 (O.S.)

불을 켜야 니 좃대가리가 보이지. 씨방새야.

책상에 걸터앉아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 섹시녀. 넥타이를 맨 사내 세 명이 서서 히죽거리고 있다. 날카로운 인상의 한부장, 살벌한 이대리, 그리고 멍청한 덩치, 막내 덕상이.

장현수

당신들... 뭐야?

이대리

새끼, 혀 짧네...

장현수

누구... 세요?

한부장

(현수 앞에 앉으며) 피차 바쁜데 짧게 끝냅시다. 정보, 어디서 받았어?

장현수

뭘 받아요?

이대리

막내야, 길쭉한 거 좀 가져와봐라. 아저씨 기억이 흐릿하시덴다.

사무실 이곳저곳을 뒤지는 덕상이. 골프채 한 자루를 들고 온다.

덕상이

이거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대리

이 병신아, 그건 큰형님 꺼잖아.

장현수

저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런 거 없이 대화로 풀어보죠.

이대리

밝고 시작하죠.



한부장

(넥타이를 들어 보이며) 야 야, 이제 니들도 비지니스맨 아니냐.  
(현수를 보며) 최근에 주식으로 재미 좀 보셨지?

장현수

주식이요...?

한부장

오메가 정보통신. 종목코드 사구삼이오오. 생각나?

장현수

그게 뭐요?

이대리

이런 짓같은 새끼가... (발로 차며) 땡기매고 있으니까 웃기지? 응?

사무실 바닥을 뒹굴며 이대리에게 몰매를 맞는 현수.

CUT TO

잔뜩 맞은 얼굴의 현수. 한부장은 보일 듯 말 듯 웃으며 담배를 빼어 문다.

한부장

이제 기억이 좀 나?

장현수

아 네... 산적은 있는 거 같아요.

한부장

산적이 있어요...? 그제께 그걸로 천 백 사십 이만 구천 육백원 벌었지?  
누구한테 들었어?

장현수

듣긴 누구한테 들어요?

한부장

이건 맷집이 좋은 거냐.. 머리가 나쁜 거냐..

장현수

아 진짜! 내가 월봉, 주봉, 일봉 다 확인하고 산거라니까요.

이대리

월봉이랑 주봉이랑 일봉이... 삼형제냐?

장현수

그건 사람이름이 아니라 주식차트데요. 봉차트...

한부장

(짜증나는 표정으로) 넌 대리운전해서 대리 달았냐? 공부 좀 해라.

이대리

씨발새끼! 너 쉽게 말 못해?

자존심 상한 이대리, 넥타이 풀고 나서려는데,

황종구 (O.S.)

거... 누가 사무실에서 먼지 피우고 그러냐.

반투명 유리 파티션 뒤에서 서서히 걸어오며 모습을 드러내는 황종구. 황종구가 나서자 덩치들이 물리선다. 아쉬움에 입맛을 다시는 이대리. 현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황종구.

황종구

아... 이 자식들, 업무 이렇게 밖에 못 보냐.

담배 한 개비를 현수에게 권하는 황종구.

황종구 (계속)

뭐하냐.

덕상이가 현수에게 불을 붙여준다. 덕상이 허리춤에 꽂혀있는 사시미칼이 현수의 눈에 들어온다. 잔뜩 쫓아서 담배연기를 앞으로 뿜지도 못하는 현수.

황종구 (계속)

내 들어보니 주식에 조예가 깊으신 거 같은데. 하시는 일이...

장현수

개인 투자하는데요.

황종구

그래... 백수시고... 근데 우리 오메가를 건드리셨다...

장현수

죽어도 전 모르고 한 겁니다. 그냥 차트보고...

황종구

누구한테 말 듣고 산 게 아니란 말이지?

장현수

맹세하고 정말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수의 안색을 훑는 황종구.

황종구

그럼 이게 작전이다...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 22. INT. DGS 캐피털 앤 홀딩스 회의실 - 새벽

회의실에 앉아있는 황종구. 한부장, 이대리, 덕상이 순서로 쪼르르 앉아있다. 현수를 꼬시던 섹시녀가 커피를 나른다.

현수는 마지못해 빔 프로젝터를 켜면, 화이트 보드위에 펼쳐지는 오메가 정보통신의 차트.

장현수

그러니까... 제가 오메가 정보통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삼 주 전입니다. 여기 요날을 보시면 대량매집이 이루어진 것을 보이죠?  
여기서부터 작전기간이라고 보면...

차트를 짚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하는 현수. 주의 깊게 듣는 황종구. 막내 덕상이는 각잡고 앉아있지만,  
이대리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

장현수 (계속)

여기서 놀림목이 발생한건 세력들이... 아니  
사장님께서 자금이 모자라서 숨고르길 한 것으로 봤습니다.

황종구, 옆을 보니 이대리는 아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코까지 골고 있다. 민망한 헛기침을 하는 현수.

황종구

이대리. (책상을 탕 치며) 이대리!

깜짝 놀라 잠에서 깨는 이대리. 누구를 부르는지 몰라서 두리번거린다.

황종구 (계속)

너! 너 말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이대리

네? 아 네. 제 생각엔... 뭐 소린지 모르겠고 말입니다.  
일단 묻으면 안부는 놔 못 봤습니다. 맡겨주십시오. 형님!

갑자기 회의 테이블로 뛰어올라 이대리의 턱을 발로 차는 황종구.

황종구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이 새끼들 꼬박꼬박 부장, 대리 불러주는데 니들은 왜 못해!  
대표님이라고 하랬잖아!

살벌한 황종구의 얼굴에서 화면 정지.

### 23. 황종구의 과거 - Montage

BGM: TV에서 주가지수 나올 때 나오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경음악.

추레한 아저씨들이 지폐를 밀어 넣고 있는 오락실. 카메라 벽을 통과해 밀실로 가면,  
한부장, 지폐계수기로 돈을 세고 있다. 쌓여있는 돈을 표정 없이 지켜보고 있는 황종구.  
갑자기 밀어닥치는 경찰들. 자존심 상한 표정으로 끌려나오는 황종구.

자막: DGS 캐피털 앤 홀딩스의 역사

장현수 (V.O.)

황종구. 그는 안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 독가스파의 보스였다.

교도소 앞, 쓸쓸하게 출소하는 황종구. 매마침 가식방 되는 재벌총수. 몰려드는 사진 기자들. 휠체어에  
앉아 당당한 표정으로 교도소를 나서는 재벌총수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황종구.

장현수 (V.O.)

조직생활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었던 그는 마누라를 때고는 다 바뀌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INSERT: 아직 적지 못한 가정환경 조사서의 직업란.

초등학생 아들 둘이 정신없이 뛰어노는 황종구의 아파트. 가정환경 조사서가 놓여 있다. 민소매 러닝차림의 황종구, 골똥히 생각에 잠겨있다. 티비에선 주식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는 황종구.

장현수 (V.O.)

조직을 정리한 황종구는 투자 회사를 차린다.  
이름하여 디. 쥐. 에스. 캐피털 앤 홀딩스,  
독가스파의 이니셜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다.  
뭐 사실 엘지도 럭키 금성이고 에스케이도 선경의 이니셜 아닌가.  
솔직히 홀딩스는 왜 붙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멋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DGS 캐피털 앤 홀딩스 건물 앞 현판식. 환한 표정으로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는 황종구. 한부장과 이 대리는 넥타이가 갑갑한 표정이다. 이때, 신문을 들고 뛰어오는 덕상이. 신문을 받아 든 황종구는 불같이 화를 내며 화환들을 발로 차 짓이긴다.

장현수 (V.O.)

매맞춰 터진 카드대란으로 자본금 절반을 한 달 만에 날린 황종구는 결국 주가조작의 세상으로 뛰어들게 된 거다. 그리고 난...

## 24. INT. DGS 캐피털 앤 홀딩스 회의실 - 새벽

살벌한 황종구의 얼굴 정지화면.

장현수 (V.O.)

독가스파 두목의 작전에 고춧가루를 뿌린 거다.

화면 정지가 풀리면서,

황종구

우리는 이제 기업이야 기업!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 양아치 새끼야.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현수를 노려보는 황종구.

황종구 (계속)

오케이 됐어. 거기까지. 니가 그걸로 목표가까지 집어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장현수

(바짝 얼어서) 아니... 그건 순전히...

황종구

운이다?

장현수

그렇다고 볼 수도...

황종구

그럼 얼마나 운 좋은 놈인지 한 번 보자.

CUT TO

아침햇살이 비쳐오는 회의실. 그제야 윤곽이 제대로 보이는 사무실은 썰렁하기 그지없다.

황종구

지금부터 디지애스 캐피탈 앤 홀딩스 배 수익률 대회를 시작하겠다.

컴퓨터 앞에 앉은 현수 어깨에 황종구가 손을 얹는다.

황종구 (계속)

오늘 하루 거래해서 수익률 십 프로 만들어. 그럼 니 말 믿는다.  
못 만들었다! 일 프로에 손가락 한 개씩... 오케이?

사무용 작두를 테이블위에 올려놓는 이대리.

장현수

하루 십 프로요? (황당하다는 웃음) 그건 인간적으로 말이...

작두에 연필을 넣는 이대리. 탕강 잘리는 연필. 얼어붙는 현수의 얼굴.

CUT TO

MONTAGE: 아홉시 정각을 보여주는 벽시계. 현수의 마우스 질이 시작된다.

차트가 뜨고 내리는 HTS 프로그램. 월 새 없이 올리는 경고음에 따라 오르내리는 주가.  
숫자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현수의 얼굴.

테이블에 다리를 올리고 휴대폰 맞고를 하고 있는 이대리.

장 마감 십분 전을 알리는 표시 창... 4, 3, 2, 1... 세시 정각을 보여주는 벽시계.

황종구

그만! (모니터를 확인하고) 칠점육 프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현수의 손목을 잡아 작두에 밀어 넣으려는 이대리.

장현수

(버티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때, '딩동,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라는 소리. 최종 수익률 10.3%가 표시되는 모니터.

장현수 (계속)

시간외! 시간외가 있잖아요! 이것도 당일 거랍니다.

수익률을 다시 확인하는 황종구.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다.

장현수

(슬그머니 손을 빼며) 말씀하신대로 십프로 넘었으니까...  
전, 이만... 수고하셨습니다.

황종구

어라? 이 놈 봐라... 내가 오메가로 박은 돈이 얼마데...  
남의 돈을 먹다 걸렸으면 토해내는 게 상도의 아닌가?

장현수

그건... 합법적인 경제활동인데요.

황종구

너 법이랑 친하나?...

## 25. EXT. 강남 거리, 황종구의 에쿠스 - 낮

화려한 강남거리를 달리는 에쿠스. 황종구와 장현수가 뒷좌석에 앉아있다.

황종구

장현수라고 했지? 차트 좀 볼 줄 아는데... 근데 왜 그러고 살아?

장현수

네?

황종구

주식을 그렇게 잘 하는데, 입은 꼬라지가...

새근한 황종구의 양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현수. 갑자기 벨트를 풀어 뽑는 황종구.

황종구 (계속)

봐. 구멍이 하나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날 위해 만들었다는 거야.  
이태리 최고 기술자가 만든 거지. 명품? 좇 까라고 그래...  
그런 공장 옷을 누가 입어?  
(구두를 벗어두고) 이건 내 발모양 고대로 만든 거야.

발냄새에 얼굴을 뒤로 빼는 장현수. 그런 현수에게 굳이 구두를 들이대는 황종구.

황종구 (계속)

봐, 이거... 상표대신 내 이니셜이 있잖아. 에이치 제이 케이. 황. 종. 구.

장현수

(계속 고개를 피하며) 멋있네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구두를 신는 황종구.

장현수 (계속)

결국 밀천 차이 아닙니까.

황종구

뭐?

장현수

똑같이 일 프로를 먹어도 백만 원이면 만 원이고 백억이면 일억인데...  
부자들하고 개미들하고 애초에 게임이 됩니까?

황종구

그러야. 돈 없으면 돈 못 버는 세상이라는 거지. 좇같지?  
이렇게 하자. 오메가는 내가 깨끗하게 인정하고.  
내가 이번에 해비급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니가 차트를 봐라.

장현수

지금 작전을 하라는 말입니까?

황종구

작전은 무슨... 자고있는 저평가주에 힘을 좀 실어주자는 거지.  
증시에 널린 돈이 육백조야. 육백조.  
누가 먹어도 먹을 돈, 남보단 내가 낫지 않겠어?...  
그래도 엄연한 기업체에 그냥 갖다 쓸 순 없고... 뭐할래? 대리? 과장?

침묵을 지키던 현수. 결심한 듯,

장현수

증권 브로커는 기본적으로 차장 달아줍니다.

황종구

(기막히다는 듯) 허! 그래 너 차장해라. 허허.  
우리 회사 차장이 이런 꼴이면 안 되지. 한부장!

## 26. INT. 호텔 사우나 - 낮

호텔 사우나 열탕. 거만한 얼굴로 현수를 보고 있는 황종구. 호랑이, 용 문신을 새긴 덩치들 사이에 끼어있는 현수의 왜소한 등.

## 27. INT. 호텔 양복점 - 저녁

황종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 양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는 현수. 옆에 선 황종구가 현수의 변신이 대견한 듯 미소 짓는다.

## 28. INT. 역삼동 일식집 - 밤

황종구가 들어서자 홀의 주방장들이 일제히 '이랏샤이마세!'를 외친다. 좌우로 열리는 밀실의 문. 조민형이 황종구를 보고 손을 들다 얼굴이 일그러진다.

황종구의 뒤로 따라 들어오는 현수. 현수도 조민형을 알아보고는 놀란다.

조민형

이거 뭐야?

황종구

이번에 같이 일할 장차장. 여기는 서진 에셋 조민형 차장. 어? 진짜 다 차장이네. 허!

조민형

이렇게 아무나 막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이 바닥 보안이 생명인 거 몰라?

황종구

니가 잘 했어봐, 이렇게까지 했겠어? 얘기 해보니까 쓸 만해. 인사 해.

내미는 현수의 손을 무시하고 자리에 앉은 조민형, 시선이 끊지 않다. 허공에 남은 손이 머쓱한 현수.

황종구 (계속)

우리 주포. 내 고등학교 동창이고... 이번엔 오메가에서 너한테 독박  
썼지만 설게 하난 이 바닥에서 알아주지. 근데 아직 아무도 안 왔어?  
아가!

문이 바로 열리면서 여종업원이 들어와 다다미방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황종구 (계속)

늦게 오는 놈들 기다릴 거 없다. 시작해.  
저번에 우리가 먹었던 그 사깨 뭐지?... 응, 야마다호. 그거 가져와.

주문을 받고 일어서는 여종업원.

조민형

그리고 아가씨! 문 앞에 서 있지 마.

여 종업원이 문을 나가자, 명품 양복으로 한껏 멋을 낸 삼십대 남성이 요란한 몸짓으로 들어온다.  
재미교포 펀드 매니저 브라이언 최.

브라이언 최

Hey! What's up! Sorry guys. Traffic is fucking jammed. It's crazy.

황종구

(혼잣말로) 식전부터 영어질이야.

조민형에게 요란한 미국식 악수를 거는 브라이언 최.

브라이언 최

Yesterday, 니네 Boss랑 뿔 쳤거든?  
(스윙 흥내를 내며) Fucking retarded. 계~속 뒤땅. 완전 농사짓더라.

조민형

시계 샀네?

브라이언 최

(시계를 자랑하며) This one? 콘스탄틴 baby. 졸라 비싼 거야.

그제야 황종구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장현수를 발견하는 브라이언 최.

브라이언 최

Who the fuck is he? Hey! I'm not working with fucking stranger.

황종구

(물수건을 집어 던지며) 조선말 안해? 니가 양키새끼야?

브라이언 최



Hey... You know... 우린 또 아무나랑 일 못하지.

또 나온 '아무나'라는 말에 빈정 상하는 현수.

황종구

내가 데리고 왔다. 어쩔래? (현수에게) 재는 뭐... 브라이언?  
브라이언 최. 펀드 매니저고 싸가지는 바가지고...  
(브라이언 최에게) 인사해. 오늘부터 내 밑에서 일하는 장현수 차장.

황종구의 서슬에 금새 꼬리를 내리는 브라이언 최. 현수에게 악수를 청한다.

브라이언 최

I'm Bryan. 기분 안 나쁘지? Nothing personal. No hard feeling, man.

조민형

오늘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

황종구

국가대표 한량이지... 건설 쪽 일할 때, 알게 된 형인데...  
대산토건이라고 알아?

조민형

거기 재개발로 잘 나가는 회사잖아.

황종구

그건 형 아버지가 사장일 때 얘기고...  
도련님들 사업하시면 또 이거저거 벌리다가 많이들 말아 드시잖아.

이 때 문이 벌럭 열리며 사십대 초반, 박창주가 들어온다.

박창주

아이 거지 새끼들... 벤틀리 주차 처음해보나...

뻔질뻔질한 인상의 박창주 얼굴에서 화면정지.

장현수 (V.O.)

대산 토건 박창주 사장. 이 사람이 작전의 씨발점이다.

CUT TO

요란한 장식의 생선회와 고급 청주로 장식된 테이블을 배경으로,

자막: 작전의 개요

박창주

엄만 몰라. 내 회산데 내 맘이지.

황종구

(조민형을 보며) 얼마나 봐?

조민형

필이 괜찮네. 한 사백 억은 팔겠다.

현수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박창주

에이... 사백억보단 더 뽑지... 아이템 죽인다니까...

조민형

디테일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합니다.  
박사장님은 지분만 꼭 쥐고 계세요. 엠엔 에이 할 땐  
대주주가 버티고 있어야 개미들이 의심 없이 따라옵니다.

황종구

엠엔 에이... 합병할 회사가 뭐라고 그랬지?

박창주

한솔이라고 환경 벤치데... 거기 사장이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다닐 땐 잘 몰랐지. 나야 맨날 나이트 다녔고 그 새긴 공부만 했으니까.  
나 원래 그런 범생이들 알려지 있잖아.

황종구

근데?

박창주

근데 이놈이 이십 년 만에 동창회에 기어 나온 거지...

## 29. INT. 호텔 연회장 - Montage

호텔 연회장. '영목 고등학교 총 동문회'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여러 개의 원탁에 중년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맥주를 홀짝이는 박창주. 입구에 꼬질꼬질한 윤상태가 들어선다.

박창주 (V.O.)

졸업할 때 유명 했거든. 공부 하나는 역수로 잘했는데  
이놈이 진짜 풀어야. 선생들이 그렇게 의대 가했는데,  
지 가고 싶은데 따로 있다고 엄청 고집을 피웠지. 그래서 어디 갔더라?...  
무슨 분자 생물학인가... 뭔가지 아마...

윤상태를 보고 속닥거리는 동창들. 박창주는 분위기를 살피며 맥주만 마신다.

박창주 (V.O.)

그런 잘난 놈이 왜 뜬금없이 동창회에 나타났나?  
오랜만에 동창회 나오는 놈은 딱 두 종류거든,  
하나의 돈 자랑하려고 나오는 놈, 또 하나는 돈 끝 데 없어서 나오는 놈.  
들어보니까, 그놈의 연구 한다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먹고,  
들입다 개고생을 했드만. 근데 이 연구라는 게 끝 때리는 거지.  
무슨 약이라는데... 이걸 물에 타면 이... 구정물, 똥물도  
다 일급수가 된다는 거야... 참 나...

조민형 (V.O.)  
수질 개선 박테리아라고 하죠.

박창주 (V.O.)  
아무튼...

동창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윤상태. 하지만 동창들은 심드렁한 표정이다.  
윤상태의 옆자리에 와서 손을 내미는 박창주. 얼떨떨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는 윤상태.  
다른 동창들은 '이때다'하는 표정으로 자리를 뜬다.

박창주 (V.O.)  
이놈 연구소랑 합병하고, 그걸로 우리 회사 주가를 튀기면!  
우회상장! 맞지?

박창주가 윤상태에게 몇 마디 건네자, 윤상태는 감격한 듯 박창주를 껴안는다.  
그들 뒤로 동창회장을 장식하던 풍선 중 하나가 줄이 풀려 천정으로 날아간다.  
스르르 올라가는 풍선을 따라가는 카메라.

황종구 (V.O.)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땡! 팔고 빠진다...

천장에 닿은 풍선이 땡 터지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 30. INT. 역삼동 일식집 - 밤

술잔을 들고 머리를 굴리는 황종구.

황종구  
장차장은 어떻게 봐.

장현수  
신약개발, 대체 에너지, 환경공학... 늘 먹여주는 테마죠.

박창주  
젠 뭐야?

조민형  
롤링 시킨다고 황대표가 부른 떨거지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벌레를 보는 듯 무시하는 박창주의 시선.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현수의 얼굴.

박창주  
근데 이게... 원래는 지용이형이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알잖아. 요즘  
형네 회사 세무조사 들어갔잖아... 니가 할 수 있는 사이즌지 모르겠다.

청주잔을 들고 느물거리며 웃는 황종구.

황종구  
걱정마. 형. 유서연이라고 알아?

박창주

누구?

### 31. INT. 유서연의 사무실 - 낮

여의도 고층빌딩에 위치한 유서연의 사무실. 금뱃지를 단 남성이 유서연과 상담하고 있다.

장현수 (V.O.)

유서연 피비, 지하경제에도 은행이 있다면 그녀가 한국은행장이다.  
비자금에 넘치는 정치가, 세금내기 싫은 졸부들... 모두 그녀를 찾는다.  
고수익에 비밀까지 철저히 보장되니 돈은 몰릴 수밖에 없다.

상담이 끝난 듯, 서류에 사인을 하는 국회의원. 유서연이 건네받은 서류봉투를 열면 일억 원짜리 무기명 채권이 두툼하게 들어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이 걸린 벽으로 걸어가,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고 채권을 넣고 돌아서는 유서연. 공무원에게 화사한 미소를 짓는다.

장현수 (V.O.)

그녀의 금고엔 고객의 돈과 함께 고객의 비밀도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고객은 곧 그녀의 자산이다.  
치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유서연의 청탁을 거절할 사람은 없고,  
그 힘은 다시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유서연의 은행에선 돈만 아니라 권력도 입출금이 되는 셈이다.

### 32. INT. 역삼동 일식집 - 밤

초밥을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무심한 척 하는 박창주.

박창주

그런 애가 있었어?

조민형

이번 일에 투자하는 전주투신도 유서연의 고객입니다.

브라이언 최

What? 전주투신? 전주투신이 이번에 전주야?

놀란 표정으로 술잔을 놓는 브라이언 최. 회심의 미소를 짓는 황중구. 하지만 박창주는 감흥이 없다.

박창주

그게 뭐 하는 회산데...

조민형

회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전주에 사는 개인 투자잔데,  
굴리는 자금이 웬만한 투자 신탁 회사보다 커서 붙은 별명이죠.  
직접 나서는 법이 없어서 실제로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황중구

레이스 치다 카드 쥐을 일은 없다 이거지.

브라이언 최

Wow! even I'm impressed! 이번 거 제대론데?

박창주

근데... 너무 잘 나서서 여긴 안 나오셨다?...

조민형

(시계를 보며) 자리를 옮기시죠.

### 33. EXT. 서초동 골목 - 밤

안개 낀 어두운 뒷골목. 당당하게 걸어오는 황종구 일행들. 육중한 철문과 그 위에 설치된 CCTV. 오페라 아리아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면서...

CCTV 화면: 카메라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 조민형.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린다.

### 34. INT. 댄서스 클럽 - 밤

평범한 입구와 달리 실내장식이 화려한 댄서스 온리 클럽.

짧은 드레스 여성이 아리아를 마무리 하고 무대에서 내려와 홀에 앉은 사장님의 무릎위에 앉으면...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서는 황종구 일행.

밀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심플한 정장의 이십대 후반의 여성, 유서연이 앉아있다.

황종구

나도 여기 회원 하나 해야겠는데...

유서연

돈만 있다고 받아주는 데는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는 황종구. 들어오는 사람들 중 현수를 쳐다보는 서연.

브라이언 최는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에 놓인 시거함에 시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인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현수만이 어색하게 자리를 못 잡는다.

조민형에게 눈으로 현수를 가리키며 누구냐는 고갯짓을 한다.

조민형

(짜증난 목소리) 황대표한테 물어봐요.

황종구

실력 되니까 데리고 다니지. 다 쓸데가 있어.

유서연

아무나 데리고 오시면 불편해요.

버럭 화를 내는 현수.

장현수

아가씨! 여기 날 때부터 작전 한 사람 있어?!

아무 돈이나 먹자고 모인 판에 아무나 끼면 안 돼?!

현수의 일갈에 갑자기 썰렁해지는 자리. 장현수를 뵈히 바라보던 유서연, 없는 듯 무시하며...

유서연

이번일은 직접 인벌브 하겠어요.

황종구

어떻게?

유서연

다음 주중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디테일한 건 그때 얘기하기로 하죠.

(장현수를 보며) 아무나 있는데서 할 애긴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즐기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서연.

브라이언 최

(마침 들어오는 웨이터에게)

Hey! 여기 와인도 가져와! two thousand one 빈티지로!

INSERT: 와인 잔에 부어지는 싱글몰트 위스키. 그리고 레드와인. 럭셔리 폭탄주, 드라쿨라.

브라이언 최

잘 봐. 이게 드라쿨라라는 건데... 이렇게 마시는 거야.

잔을 입술에 대고 와인 폭탄주를 원샷하는 브라이언 최. 와인 폭탄주가 입가에 넘쳐 흰 와이셔츠를 붉게 적신다.

브라이언 최 (계속)

Yeah! I am a Dracula!

최고급 양주에 화려한 인테리어의 술집. 명품 양복과 시계로 치장한 사람들 틈에서 현수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술에 취하는 건지 돈에 취하는 건지...

황종구

(혀 꼬인 소리로) 장현수 이 씨발놈. 봐. 저 새끼 부모 잘 만난 새끼. 저

새끼 대학 잘 간 새끼... 여기 있는 새끼들 중에 너보다 잘난 것들은

하나도 없어. 앞으로 이런 작전은 끝도 없이 많으니까. 잘해. 응!

현수에게 드라쿨라를 안기는 황종구. 단숨에 술을 들이키는 현수. 입가로 흘러넘치는 포도주가 현수의 와이셔츠를 붉게 적신다.

### 35. INT. 버려진 헬스클럽 - 아침

햇빛 포도주가 잔뜩 번진 흰 와이셔츠를 입은 채 간이침대에 널브러진 장현수.

마치 칼에 찔려 죽은 시체와 같은 모습이다. 눈을 뜨더니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 현수.

주위를 둘러보면 사용한지 오래된 헬스장인 듯, 사방을 둘러싼 거울들과 녹슨 헬스기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과 각종 짐기들이 있고, 조민형이 골프복 차림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다.

조민형

주식 오년 했다는 인간이 여섯시가 넘도록 자빠져 자?  
개장 전에 미국 증시부터 체크하는 건 기본 아냐?

얼떨떨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 현수. 조민형이 파일을 현수 앞에 던져놓는다.

조민형

당장 니가 할 일은 최대한 조용히 대산 주식을 매입하는 거야.  
아직 합병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주가는 바닥이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거래의 기본 아니겠어?

장현수

지금 나 감금한 거야?

조민형

(일어서며) 백수, 출장 나왔다고 생각해.

장현수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하루 종일 주식매매나 하라고?

조민형

익숙하잖아? (현수의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동안 이걸 내가 갖고  
있었다.

조민형은 비웃으며 헬스장을 나선다. 문 앞에 버티고 서서 현수를 감시하는 덕상이.

### 36. INT. 골프장 클럽하우스 - 낮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조민형과 황종구, 박창주, 그리고 삼십대 초반, 김승범이 로비에 앉아있다.

조민형

합병 공시 뜨면 바로 랠리 시작할 거야. 개미들... 처음엔 지켜만 보겠지.  
삼십만 상한가 치면 안 넘어오는 놈 없어.

황종구

한 달 안에 승부를 봐. 길게 끌 거 없어.

박창주

그럼 바람잡이가 있어야지...

조민형

그래서 김승범 실장 같은 언론 스타가 필요한 겁니다.  
엠비엔에서 쪽집게 분석으로 유명한 애널리스트...  
다들 보시죠? 김승범의 내일을 분석한다. 저기 오시네.

단정한 헤어스타일, 단정한 인상의 삼십대 중반 김승범이 자리로 걸어온다.

조민형

형! 여기...

김승범  
(명함을 건네며) 김승범입니다.

황종구  
야... 직접 보니 더 미남이네. 피부가 아주 좋으십니다.  
관리를 어디서 받으시나?

뜬금없는 질문에 어색한 웃음을 짓는 김승범.

### 37. EXT. 골프장 - 낮

페어웨이를 당당하게 걷는 네 남자. 가냘픈 여자 캐디들이 무거운 골프가방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

조민형  
인터넷에서 김 실장님 별명이 뭔지 알아? 교주님이야. 교주님.  
미국에 엘런 그린스펀 연준위 의장 있잖아?  
말 한마디에 미국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대한민국에는 우리 김승범 애님이 있는 거지.  
맘만 먹으면 지수 백포인트 정도는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다니까.

박창주  
그래 봐야 케이블 이지...

김승범  
선수들은 다 제 방송 봅시다. 공중파는 정보가 늦어서 안보지.

황종구  
작전 끝나면 전주투신한테 얼마나 가지?

조민형  
일반적으로 전주가 칠십 프로는 가져가지.

황종구  
하여간 재주는 꿈이 부리고...

조민형  
그거뿐만 아닙니다. 여기 저기 진행비에 우리 김 실장님도 있고...  
브라이언한테 못줘도 한 십억은 쥐어줘야 합니다.

박창주  
그 교포 새끼한테 그렇게 많이 줘야 돼?

조민형  
나중에 펀드 매니저 역할이 중요합니다.

두껍게 선크림을 발라 허연 얼굴의 황종구는 흠족한 듯 크게 고개를 끄덕인다.

### 38. INT. 버려진 헬스클럽 - 같은 시각



모니터를 보며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현수.

현수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답이 없다. 현수, 돌아보면 부동산자세로 이쪽을 보고 있는 덕상.

현수 (계속)  
병어리요?

여전히 반응이 없자, 다시 고개를 돌려 모니터를 보는 현수.

현수 (계속)  
(혼잣말) 시추에이션 예술이다.

### 39. EXT. 골프장 - 낮

그린에서 차례차례 퍼팅을 하는 황종구 일행.

박창주  
이번 일 잘 끝나면 내가 누구 좀 소개시켜줄게.

황종구  
나야 늘 관심 있지...

박창주  
그 집도 엄청 부자거든. 가스전 개발 하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국왕하고 딜만 잘 되면 천억은 그냥 떨어진다...

황종구  
형이 자리를 만들어 봐. 나이스 퍼팅!

김승범, 퍼팅을 마치면 옹기종기 모여서 만 원짜리를 꺼내 서로 주고받는다. 갑자기 좀스러운 분위기.

황종구  
형 더블보기잖아. 이만 원 줘야지. 이래갖고 인건비나 건지겠어?

### 40. INT. 버려진 헬스클럽 - 아침

숙제 검사하듯 현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조민형.

조민형  
이래갖고 어디 공시 전에 물량 맞추겠어?

장현수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면 바로 추격매수 들어와. 몰라?

조민형  
(피식 웃는다) 내가 주포 원 투데이 한 줄 알아?

작전실 한편에 있는 팩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종이를 뺏어낸다. 종이를 집어 드는 조민형.

조민형 (계속)

이렇게 아침이면 장판지가 바로 팩스로 들어와요.  
너 장판지가 뭔진 알지?

장현수

장판지? 바닥에 까는 거?

조민형

아... 이런 새끼랑 내가 일해야 되나...  
주식시장에서 어제 누가 얼마큼 샀는지 누군 팔았는지 아침이면 이렇게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필요하다면 개별구좌도 다 까볼 수 있고.  
(종이를 건네며) 그니까 쓸데없는 머리 굴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나 하셔.

장현수

(종이를 받아들고, 혼잣말로) 이러니까 매번 개미들만 죽어라 털리지...  
도둑놈들...

나가던 조민형, 거만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조민형

니들은 맨날 세력들한테 당했네, 작전에 말렸네, 하면서  
우는 소리들 하지?  
대가리 팔려서 깡통 찻단 소린 죽어도 안 해요.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돌리는 거야.  
주식시장이 냅두면 알아서 크는 줄 알아?  
우리 같은 사람이 계속 자극하고, 흔들어 주고, 활기를 넣어줘야  
움직이는 거라고.

장현수

깡통 차고 한강 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보지?

조민형

누가 주식 사라고 등 떠밀었나? 주식은 전쟁이야.  
전쟁에서 사상자가 나는 건 당연한 거야?  
미사일이 오고가는 전쟁터에 딱총 들고 뛰어들겠다는데 누가 말려?

조민형의 뻔뻔함에 기가 차는 현수.

#### 41. INT. 유서연의 사무실 - 밤

진공관 앰프의 은은한 불. 스피커에서 나오는 라틴 음악. 소파에 기대어 음악을 듣는 서연.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온다.

비서

그 말씀하셨던 장현수라는 사람 말인데요.  
무슨 회사에서 일했다는 기록도 없고, 뭐 집히는 게 없네요.

유서연  
계속 알아봐...

비서  
근데 피비님, 이번 건은 패스하시죠.

유서연  
무슨 소리야?

비서  
조민형 평판이 예전만 못합니다. 황종구 같은 인물과 엮인 것도 그렇고...

유서연  
사람 차별 하지 마. 어떻게 버느냐 보다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때 말한 건 준비 됐지?

테이블 위에 서류봉투를 놓고 나가는 남비서.

#### 42. INT. 유서연의 사무실 앞 복도 - 낮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황종구와 조민형. 엘리베이터에서 “사십 구층 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황종구  
사무실 높은데다가도 구했다. 사십 구층. 어휴..

조민형  
왜 장현수 같은 근본도 없는 애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

황종구  
니가 그걸 봤었어야 된다니까 그 놈이 차트 보는 재주는 있어요.  
하여간 그놈의 서울대 자존심...

조민형  
차트 만지는 애들은 나도 많이 알아.

황종구  
그래서 오메가가 그 꼴이 났나? 꼭 차트 때문만은 아냐.  
두고 봐. 이쪽 머리는 내가 나야.

#### 43. INT. 유서연의 사무실 - 낮

나란히 앉아 유서연과 마주하고 있는 황종구와 조민형. 인테리어를 둘러보는 황종구.

황종구  
사무실 좋습니다.

서연의 책상위에 놓인 전화기를 보고 아는 체를 하는 황종구.

황종구 (계속)

오. 땀엔 울슨. 역시... 감각이...

황종구에게 서류를 내미는 서연.

유서연

차명 계좌들이에요. 앞으로 거래는 여기에 있는 걸로 하세요.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계좌 들어죠.

조민형

유평비. 지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합니까.

황종구

못 믿는다 그거지.

유서연

혈서 쓰고 폭탄주 들리면서 의리 찾는 건 남자들이나 하는 것이죠.  
(USB 메모리를 건네며) 계좌 공인 인증서이에요.  
이거 없으면 출금은 물론 조회도 못하는 거 아시죠?

조민형

이게 답니까?

유서연

어디서 거래 하는지도 봐야겠어요.

#### 44. INT. 버려진 헬스클럽 - 낮

역기 운동을 하는 현수. 거울에 비친 알통을 확인한다. 역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계속 바라보는 현수.  
연극 대사를 읊어보는 현수. 점점 자신의 연기에 심취하는데, 서연이 들어온다. 머쓱한 표정으로 급히  
역기를 드는 현수. 하지만 현수의 행동을 이미 봤는지 서연은 피식- 웃고 지나간다.

CUT TO

군 상황실 버금가게 차려진 작전실. 각종 첨단기기들이 설치되어 있고, 예상 목표 그래프가 거울위에  
그려져 있다. 그래프 앞에서 브리핑하는 조민형. 맞은편엔 황종구와 유서연이 앉아있다.  
좀 떨어진 곳에서 현수는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민형

합병공시에서 주주총회까지 보름.  
그 안에 주당 삼만 원까지 끌어 올리고, 주총 끝나면 바로 던질 겁니다.

거울로 걸어가 그래프를 눈여겨보는 서연. 이때, 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던 현수가...

장현수

나 같으면 삼만 원까지 안 밉니다.

현수를 돌아보는 서연.

유서연

이유는요?

장현수

대주주 지분이 너무 적어요. 초기매입량을 너무 높게 잡은 것도 문제고요. 봐요. 벌써부터 냄새 맡고 추격 매수가 들어오는 놈들이 있잖아요.

조민형

뭐?!

황종구

쏟짜가 붙었어? 언제?

장현수

지금요.

현수의 모니터로 모여드는 황종구, 조민형, 그리고 유서연.

장현수 (계속)

거래량 보고 따라오는 거 같은데... 일단 우리 물량을 버려서 가격을 다운 시키죠. 겁먹고 나가면 오히려 이익이에요. 떨어진 가격으로 다시 사면 그만이니깐.

황종구

어떤 놈들이 작전주에 작전을 걸어. 자신 있으면 해봐.

장현수

아직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조민형

그러다 저쪽에서 던진 물량 받으면 끝이야. 알아?

장현수

보나마나 분치기로 들어온 단타들이야.  
애네 들은 들어와서 오 분 안에 비전 없으면 바로 나가.

얼어붙은 듯 모니터를 주시하는 조민형과 황종구. 현수는 여유 있는 표정이다.  
이런 광경을 뒤에서 보고 있는 유서연. 한참을 지켜보던 현수, 잼싸게 키보드를 두드린다.

조민형

이십만 주? 너 미쳤어?

장현수

그 정도는 해야 겁을 먹지. 뭐 이렇게 새가슴이서.

INSERT: 시시각각으로 업데이트 되는 주가 그래프. 완만한 상승선을 그리던 그래프가 꺾인다.  
다시 매수 주문을 넣어서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현수. 장난스럽게 찡긋 윙크를 한다.  
느닷없이 현수의 먹살을 잡는 조민형.

조민형

니가 지금 얼마짜리 작전을 망칠 뻔했는지 알기나 해?

유서연  
그만하죠.

유서연의 눈치를 보며 먹살을 푸는 조민형.

유서연 (계속)  
배짱 하난 쓸 만하네요.

장현수  
애매하게 걸치는 거, 성격에 안 맞습니다. 올 오어 낫명.

유서연  
하지만 언젠가는 부러지죠. 웬줄 알아요? 늘 모든 걸 거니까.  
열 번을 따도 한 번 지면 다 잃죠.

헬스장을 나서던 서연. 돌아서서.

유서연 (continung)  
그리고 조 차장님. 목표가 다시 잡으셔야겠어요. 그래프도요.

조민형  
유포비! 지금 저런 애송이 말을 듣자는 겁니까? 주포는 낡니다.

유서연  
난 지금 조차장님 자존심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 45. INT. 증권사 객장 - 낮

한산한 객장에는 나이든 아저씨, 아줌마들이 한가롭게 잡담을 나누고 있다.  
대조적으로 분주하게 거래에 열중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들의 모습이 뒤편에 보인다.

INSERT: 주가 전광판 구석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대산 토건의 주가. 4250원에서...

#### 46. INT. 헬스클럽 - 낮

4250원이 표시된 현수의 컴퓨터 화면으로...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현수.  
여전히 뒤에서 현수를 감시하는 덕상.

덕상이  
장차장님. 바쁘니까?

장현수  
네? 아니... 뭐...

의자를 가져다가 현수 옆에 앉는 덕상이.

덕상이  
그거 하려면... 대학 나와야 됩니까?

장현수

뭐요? 주식이요?

덕상이

(바싹 다가앉으며) 제가 건달 막내만 삼년 쯤데 돈이 통 모이지 않아서요... 좀 배워볼까 해서요. 이제 저도 명색이 주식회사 직원 아닙니까.

장현수

(담배에 불을 붙이며) 담배 피는 사람이 남한테 담배 피라 안하죠? 똑같아요.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몸은 몸대로 축나고... 이게 좋아 보입니까?

덕상이

힘들다고 해도 이 생활 만 하겠습니까?

이때, 헬스장으로 박창주 사장이 들어온다.

박창주

(덕상에게) 황사장 어디 갔어?

덕상이

대표님 골프 가셨는데요.

박창주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뿔만 치러 다니나... 어쩔 수 없지. 장차장, 나랑 어디 좀 갑시다.

덕상이

장차장님 나가시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박창주

거... 참... 공시 전에 연구소 한 번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황사장 없으니까 어떡해, 당신이 갈 거야? 장차장이라도 가야지. 장차장, 늦었어. 얼른 준비해.

#### 47. EXT. 외곽 순환도로, 박창주의 벤틀리 - 낮

벤틀리 뒷좌석에 박창주와 나란히 앉은 장현수.

박창주

장현수라고 했지? 황종구랑 어떻게 워였는지 대충 들었어. 지는 오메가로 손해 본 것도 얼마 없으면서... 내가 뭐 해줄 건 없고, 이렇게 바람이라도 쐬면 좋잖아. 오늘 황종구 라운딩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왔지.

장현수

아 네...

박창주

좃도 모르는 캄패새끼... 주식한다고 용쓰지. 내가 원래 무식한 것들은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 48. INT. 한솔 환경공학 연구소 집무실 - 낮

연구소 내 윤상태 박사의 집무실. 책상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있고, 벽면은 온통 책장으로 둘러져 있다. 손수 커피를 준비하는 윤상태 박사. 박창주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다.

박창주

이게 뭐냐. 정리 좀 하면서 살아라.

윤상태

미안, 미안... 데이터가 수시로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어.

박창주

돈 들어간 게 얼마데 티가 안나나. 티가...

윤상태

알지. 정리할게.

서둘러 책상을 정리하는 윤박사. 그런 모습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박창주의 휴대폰이 울린다.

박창주 (계속)

어! 아 무슨 소리아! 어제 얘기 다 된 건데...

박창주, 눈치를 보며 집무실 밖으로 나간다. 커피를 내놓는 윤박사. 둘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

장현수

박사님 덕에 이제 지구가 다 깨끗해지겠네요.

윤상태

수질 오염이란 게 워낙 복합적 현상이라 그런 환상은 금물입니다.

장현수

하나만 해결 되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윤상태

이번에도 투자 받지 못했으면 연구 더 진행 못했을지도 몰라요. 다 저 친구 덕입니다.

장현수

방송에서는 곧 상용화 된다고... 언제쯤 인가요?

윤상태

보고서, 매달 보내는데... 안 읽어보셨어요?  
확실한 건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장현수

그럼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윤상태

과학이란 게 백퍼센트 성공한다 못 박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인거죠.

책상에 쌓인 보고서를 집는 현수, 한편에 놓인 액자 사진에 눈이 간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딸과 함께 찍은 윤박사의 사진.

장현수

따님이신가 봐요. 이거 가져가도 되죠?

이때, 문을 여는 박창주.

박창주

장차장, 뭐해? 갑시다.

#### 49. EXT. 외곽 순환도로, 박창주의 벤츨리 - 저녁

황혼이 붉게 물드는 저녁.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현수. 무릎 위에는 연구 보고서가 올려져있다.

박창주

현수씨, 말이야.

장현수

네?... 네.

박창주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이 작전 잘 돼 봐야 당신한테 떨어지는 거  
별거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땀을 흘리다) 현수씨가 좀 내편이 돼 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박창주, 현수에게 휴대폰을 건넨다.

박창주 (계속)

이걸로 말이야... 작전하다가 털고 나갈 때가 되잖아?  
먼저 나한테 전화 한번만 넣어.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것만 해주면, 내가 따로 섭섭하지 않게 챙겨 줄게. 응?

은밀한 미소를 던지는 박창주. 현수의 무릎 위에 놓인 박창주의 휴대폰과 윤상태의 연구보고서.

#### 50. INT. 금융감독원 증권 6팀 - 낮

금융감독원의 증권 6팀 사무실. 사무실의 직원들은 하나같이 컴퓨터로 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고지식해 보이는 인상의 삼십대 중반, 이재학 조사가관이 팀장에게 서류를 들고 간다.

이재학

팀장님.

팀장

응? 뭔데?

이재학

대산 토건이라는 회사데요. 이것 좀 보시죠.

팀장

뭐가 문제데?

이재학

딱히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거래량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감리지정  
요건은 꼭 피해간단 말이지요. 누군가가 조절한다는 느낌입니다.

팀장

또 느낌? 소액 투자자만 몰렸나보지. 확실한 거 아니면 신경 꺼.  
우리가 모니터해야 되는 종목만 칠백 개다. 칠백 개.

실망한 얼굴로 돌아서는 이재학. 이재학이 자리로 돌아가자, 팀장은 눈치를 보며 수화기를 든다.

## 51. INT. 버려진 헬스클럽 - 낮

모니터를 보며 매입 주문을 넣고 있는 현수. 그 뒤로 테이블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황종구와  
조민형. 테이블 너머에는 유서연이 앉아있다.

조민형

금감원 쪽에서도 꼴통으로 유명하답니다.

황종구

귀찮게 됐네. 와이로도 안 먹힌다면서.

조민형

(황종구를 쳐다보며)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조민형의 말뜻을 알아차린 황종구. 살기어린 눈빛으로 조민형을 쏘아본다.

황종구

무슨 방법?

조민형

(시선을 피하며) 당장은 몰라도, 본격적으로 상승장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신경 쓰일 겁니다.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요...

유서연

이름이 뭐라고요?

조민형

증권 육 팀, 이재학 사무관이요.

휴대폰을 꺼내는 유서연. 현수는 종이 한 귀퉁이에 이재학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

유서연

열심히 사는 사람 같은데 잘해줘야죠...

모니터를 보다 벽면 거울로 서연을 훑쳐보는 현수.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한다.  
서연은 그런 현수를 의식하는지 야릇한 미소를 짓는다.

## 52. INT. 금융감독원 증권 6팀 - 낮

컴퓨터와 서류를 대조하며 대산 토건의 혐의를 찾고 있는 이재학. 팀장이 다가온다.

팀장

자네 나 모르게 무슨 로비 같은 거 하나?

이재학

그게 무슨 말씀 입니까? 로비라뇨?

팀장

이 사람 우직한 줄만 알았더니 여우같은 면이 있네.

이재학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팀장

자네를 기획 조정실 데스크 포스 팀으로 파견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지는 알지? 우리 금감원에서도 노른자위 아닌가.

이재학

기획 조정실이요? 저를요?

팀장

너무 놀라는 척 한다. 티나게...  
거기 들어가면 일이 장난 아니게 많을 텐데...  
나 같으면 보내준대도 싫다. 뭐해? 짐 싸.

## 53. INT.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 저녁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황종구와 조민형, 박창주, 유서연이 와인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황종구

송진을 시키다... 허허.. 허..

유서연

그런 타입은 괜히 놀렀다가는 어디로 될지 모르죠.  
지금쯤 일에 파묻혀서 우리 쪽은 신경도 못쓸걸요?

박창주

나한테 얘기하지. 나, 아는 형도 금감원에 있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자 불안해진 박창주 묵묵히 스테이크를 썬다.

## 54. EXT. 레스토랑 앞 주차장 - 밤

주차요원들이 분주하게 차를 대령하는 주차장.

황종구

어떻게... 유피비도 한 잔 더 하실까?

유서연

이쯤에서 전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 들어갈게요. 박사장님,  
저번에 부탁하셨던 재경부 사람 말인데요. 시간 정하세요.

박창주

뭐... 꼭 필요했던 건 아닌데... 한 번... 만나보지. 뭐.

피식 웃으며 주차요원에게서 키를 받아 차에 오르는 유서연.

## 55. INT. 헬스클럽 트레이너 실 - 밤

간이침대에 팬티바람으로 누워있는 현수, 윤상태 박사의 보고서를 읽어보는 현수. 표정이 진지해진다.  
문이 열리자 화들짝 놀라며 보고서를 뒤로 숨기는 현수.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유서연이다.

당황하는 현수.

장현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유서연

오늘은 혼자서 연극 안 해요? 공연 보러 왔는데...

현수에게 다가가는 서연, 현수에게 몸을 기울이자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든다. 살짝 취한 듯,  
상기된 그녀의 얼굴이 현수의 얼굴에 스칠 듯 가깝다. 자신도 모르게 뒤에 숨긴 보고서를 꼭 움켜쥐  
는 현수.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현수 옆에 있던 담배. 아쉬움의 한숨인지 안도의 한숨인지, 긴 숨  
을 내쉬는 현수.

유서연

어떻게 황종구 수하로 들어가게 됐는지 들었어요.

장현수

수하는 무슨... 그래서요?

유서연

현수씨 정도라면 더 나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왔어요.

작은 휴대폰을 꺼내는 서연. 현수에게 건넨다.

장현수

이 핸드폰으로 매도 타이밍을 알려 달라.

현수의 말에 살짝 미소 짓는 서연.

장현수 (계속)

그래 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잠시 생각) 따로 매집하고 있는 거군요?

유서연  
(웃으며) 알려주기만 하면 되요.

장현수  
대가는?

유서연  
두고 보면 알겠죠?

장현수  
거절하면?

유서연  
그 정도 바보는 아닌 거 같은데.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끄는 서연.

CUT TO

불이 꺼진 트레이너 실. 간이침대에 앉아서 벽시계를 확인하는 현수. 시계는 새벽 두 시를 넘고 있다. 박창주가 준 휴대폰과 유서연이 준 휴대폰을 양손에 들고 생각에 잠긴 현수, 벽 너머, 헬스장 매트에 선 덕상이가 코를 골며 자고 있다. 굳게 결심한 듯 전화를 거는 현수.

#### 56. INT. 대학 도서관 - 밤

두꺼운 공무원 입시 서적을 펼쳐놓고 공부하던 준수. 진동소리에 놀라 전화기를 들고 나온다.

#### 57. EXT. 대학 캠퍼스 / 헬스클럽 트레이너 실 - 밤

어두운 교정으로 걸어 나오는 준수.

장준수  
형 번호 바꿨어? (한숨) 이 공무원 시험도 장난 아니야. 형.  
경쟁률 백대일이 넘는데. 인생이 원래 이렇게 무난하기가 힘든 거야?

INTERCUT: 유리창으로 덕상의의 자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통화하는 현수.

장현수  
됐고, 너 지금 당장 이리로 와야겠다. 여기가 대방역 있는 데거든....  
쫘! 형 말 좀 들어... 날라와라.

전화를 끊은 현수, 샤워장 창문으로 가 창틀을 떼어 낸다. 고개를 내밀어 가스관에 손을 뻗어보는 현수.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 있는 가스관.

#### 58. INT. 톨살롱 - 같은 시각

아가씨와 함께 방을 나서는 박창주. 고주망태가 되어있다. 배웅하는 황종구와 조민형.

박창주가 떠나면 자리에 돌아와 앉는다.

황종구

(아가씨들에게) 야 니들도 잠깐 나가봐. 정신없다.

(아가씨들 나가면) 이제 술술 진짜 작전얘기를 해야지?

조민형

진짜 작전이라나?

#### 59. EXT. 버려진 헬스클럽 외부- 밤

가스관을 붙잡고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현수. 한 층을 간신히 내려간 뒤 창문을 열고 복도에 안착한다.

#### 60. INT. 톱살통 - 밤

자기 잔에 양주를 따르는 황종구. 조민형의 잔에도 술을 따라준다.

황종구

해보니까 말이야. 이 주식, 체질에 영 안 맞아.  
오를락 말락 짜증나서 못 보겠어.

조민형

통정만 시작하면 금방 끝나. 조금만 기다려 봐.

황종구

(손가락으로 그래프 오르내리는 흉내를 내며) 성공하면... 얼마 번다고?

조민형

못해도 우리한테 백억은 떨어진다니까.

황종구

전주투신한테 담보로 잡힌 거 빼고도 들리고 있는 주식이  
지금 얼마야... 이백억. 당장 우리 손에 있는데 더 많은데  
뭐 하러 그 지랄을 하냐고!

#### 61. 빌딩 주차장 / 톱살통 - 밤

빌딩 뒤편 주차장. 기다리고 있는 현수. 건물너머에서 준수가 택시에서 내린다.

장현수

(작은 목소리) 준수야.

장준수

형 뭐야? 주식하다 또 망했지?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야?

장현수

아냐. 병신야. 지금 작전 중이라서 그래.

장준수  
무슨 작전? 형 군대 다시 들어갔어?

장현수  
(한숨) 주식 작전. 못 들어봤나?  
준수야 지금부터 내가하는 말에 우리 미래가 걸려있다.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표정의 준수.

INTERCUT: 룬살롱. 양복 주머니에서 접은 종지와 USB 메모리를 꺼내는 황종구.

황종구  
이거 내가 준비한 계좌야. 이걸로 주식 다 갈아 태워.

조민형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러면 유서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황종구  
어이 조민형이. 누가 니 생각 물어봤어?

조민형  
통정거래 시작하면 주식이 들고 도니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황종구  
이놈 저놈 다 제끼고! 이번 한 방으로 끝내는 거야.  
이 바닥도 별 재미가 없어. 좀 있으면 선거철이잖아.  
거 공천 받는데 이 삼십억이면 된다드만.

조민형  
정계진출 하시겠다...

황종구  
법이 싫으면 법을 바꾸면 되잖아.

조민형  
장현수, 그 새끼는 어떻게 할 건데?

뜸을 들이며 의미심장하게 웃는 황종구.

INTERCUT: 빌딩 주차장.

장현수  
좀 있으면 주식 하나가 장난 아니게 오를 거야.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 원룸 어딘지 알지?  
(열쇠를 주며) 이걸로 문 열고 들어가서 책상 두 번째 서랍 열면  
내 통장이랑 인감 있어...  
(주위를 둘러보는 준수의 얼굴을 붙잡고) 잘 들어! 준수야.  
내말 잘 듣고 그대로 해야 된다. 통장에 한 칠천만원쯤 있을 거야.  
내일 그걸로 대신 토건 주식을 사. 칠천만원 다!

이건 우리 인생에 온 기회다. 못해도 열 배는 먹을 수 있어.

장준수  
그럼... 허익! 칠억?

장현수  
최소한.

INTERCUT: 룸살롱.

황중구  
봐, 자, 우리가 전주투신 돈을 빼돌렸다. 그럼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  
돈 찾는다고 여기저기 들쭈시고 다닐 거 아냐.  
근데 이 팀에서 가장 의심 살만한 놈이 누구야?

조민형  
장현수... 그래도 유서연 쪽에서 놈을 찾기만 하면  
바로 우리라는 걸 알게 될 텐데.

황중구  
절대 못 찾지. 찾을 수가 없지.

· 황중구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민형.

황중구 (계속)  
우리 이대리가 딴 건 몰라도 묻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실실 웃으며 술을 마시는 황중구. 조민형은 얼굴이 험색해진다.

INTERCUT: 빌딩 주차장.

장준수  
형 근데 이거 위험한 거 아냐?

장현수  
지금 돌아가는 돈만 백억이 넘는데 몇 억 정도는 눈에 띄지도 않아.  
거기다 내가 조종하는데 누구한테 걸리겠냐?  
걱정하지 말고 내일 장 열리자마자 주식부터 사.

장준수  
거기가 뭐 하는 회사라고?

장현수  
대산 토건. 거기는 그냥 꺾테기고 좀 있으면 한솔이라고  
무슨 환경공학 회사랑 곧 합병을 해. 그 전에 사야 돼.

장준수  
한솔이면... 윤상태 박사님 연구소 말이야?

장현수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장준수

나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었잖아.  
그때도 무슨 박테리아 개발 한다고 학교 그만뒀는데,  
아직도 그거 하는 구나.

장현수

그래? 그럼 (보고서를 꺼내며) 여기 있는 내용도 좀 알아봐.  
확인되면 아까 그 번호로 문자 보내고. 알았지?  
씨발, 준수야. 어차피 눈먼 돈이야. 남보단 내가 먹는 게 낫지 않겠냐?

## 62. 빌딩 외벽 / 헬스클럽 - 밤

깡깡대며 가스관을 붙들고 오르는 현수.  
조심조심 헬스클럽으로 들어온다. 아직까지 세상모르고 자고 있는 덕상이. 방으로 들어가는 현수.  
현수가 방문을 닫으면 덕상이, 조용히 눈을 뜬다.

## 63. INT. 증권전문 케이블 방송국 MBN 스튜디오 - 낮

방송준비로 분주한 뉴스 스튜디오.  
멘트를 챙겨보는 여성 아나운서와 마지막으로 김승범의 분장을 정리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방송 시작을 알리는 FD의 손짓이 바빠지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쫓기듯 세트에서 내려온다.  
방송 시작 삼 초전, 이 초, 일 초.

여성 아나운서

오늘의 증권계 소식, 엠비엔 전속 에널리스트이신  
김승범 실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 64. INT. 버려진 헬스클럽 - 낮

텔레비전을 통해 보이는 김승범의 얼굴. 모니터 앞의 현수가 뉴스를 보고 있다.

김승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험세를 유지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뒀니 뒀니 해도 오늘 주식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중견 건설업체 대산 토건의 한솔 환경공학 인수합병 소식이었습니다.  
한솔 환경공학은 획기적인 수질 개선 박테리아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 벤처기업인데 우리 기획 프로그램에서도 한 번 소개가 됐었죠.  
오늘 한솔 인수를 발표한 대산 토건의 박창주 사장을 만나 봤습니다.

## 65. INT. 대산 토건 사장실 - 낮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된 박창주의 사장실.

박창주

우리 대산 토건은 환경기술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솔과의 합병은 환경 개선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환경 공학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조연출이 들고 있는 멘트를 그대로 읽고 있는 박창주.

#### 66. INT. 호텔 사우나 - 낮

황종구와 조민형, 그리고 박창주가 한증막에서 텔레비전으로 박창주의 인터뷰를 보고 있다.

박창주

내가 화면발을 좀 받아. 그치?

혼자서 신이 난 박창주. 하지만 아무도 맞장구 쳐주지 않는다.

#### 67. INT. 유서연의 사무실 - 낮

벽걸이 티비로 뉴스를 보고 있는 유서연. 화면 속에선 김승범이 멘트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범

대산 토건의 합병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  
상한가로 장을 마쳤는데요. 증가는 만 천 오백 칠십 원.  
거래량은 오백사십이만 주에 달했습니다.

유서연의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주가 그래프. 급격한 상승곡선이 그려져 있다.

INSERT: 서연의 책상위에 놓인 윤상태 박사의 보고서.

#### 68. INT. 증권사 객장 / 증권 거래소 / 박지혁의 회사 사무실 montage - 낮

객장에서 주문서를 작성하는 아저씨와 아줌마, 주문서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바쁜 움직임 뒤로 주가 전광판이 보인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증권거래소. 박지혁의 사무실, 주식 프로그램을 몰래 보고 있는 박지혁. 모두들 대산토건의 주식을 사고 있다.

INSERT: 주가 전광판에 보이는 대산 토건의 주가. 위로 향한 빨간색 화살표와 가파른 상승 그래프.

#### 69. INT. 버려진 헬스클럽 - 낮

거울에 그런 목표 주가 그래프로... 그래프의 곡선이 거의 동일하다. 혼자서 외롭게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현수.

황종구 (V.O.)

오일 연상이라... 그럼 좋아...

조민형 (V.O.)

분위기 좋을 때 한 번 꺾어줄 거야.

이쯤에서 관쟁이들은 털어내고, 튼실한 개미들로 갈아 태워야지.

박창주 (V.O.)

그래 봐야 몇 십억 차이 안 나는데... 털고 끝내지?

조민형 (V.O.)

대주주 빠지면 작전이고 뭐고 그냥 끝입니다. 기다리세요.

황종구 (V.O.)

형. 거 때 되면 어렵히 안 챙겨줄까. 애새끼 마냥 보채기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몸을 뒤로 빼는 현수. 피로한 표정이 역력하다.

## 70. INT. 증권사 객장 / 박지혁 사무실 - 낮

전광판으로 보이는 대산 토건의 주가, 이번엔 하락이다. 멍하니 전광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사무실에서 몰래 모니터를 보고 있는 박지혁의 얼굴, 갑갑한 표정이다.

서류들에 파묻혀 업무를 처리하기 바쁜 금감원 이재학 조사관.

## 71. INT. 버려진 헬스클럽 - 저녁

모니터로 대산 토건의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는 장현수. 조민형은 거울을 보고 스텝퍼를 하고 있다.

장현수

자금도 다 떨어져 가는데 뭘 수로 다시 올릴 거야?

조민형

그래서 개미는 기어봤자 라는 거다.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조민형.

조민형 (계속)

어, 나야. 어디야?

## 72. INT. 호텔 휘트니스 센터 - 같은 시각

브라이언 최가 스텝퍼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귀에는 무선 헤드셋이 꽂혀있고, 시선은 옆에서 가슴운동을 하는 여자에게 꽂혀있다.

브라이언 최

Hey, Joe. I'm at the gym... What's up?... Yeah! I was born ready.

스텝퍼에서 뛰어내려 샤워실로 향하는 브라이언 최. 시선을 주던 운동녀에게 윙크를 날리고 걸어가는 브라이언 최의 얼굴에서 화면정지.

## 73. 브라이언 최의 하루 - Montage

은색 마세라티를 몰고 출근하는 브라이언 최. 최첨단 빌딩의 주차구역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간다.

조민형 (V.O.)

너 대한민국 백성들이 뭘에 제일 정신 못 차리는지 알아?

한손에는 튀비푹 서류가방, 한손에는 스타벅스 컵을 들고 씩씩하게 사무실 복도를 걷는 브라이언 최.

조민형 (V.O.)

외제야 외제. 업전들 외제 명품이라면 짝퉁이라도 좋다고 난리지?  
주식 정보에도 외제가 있다 이 말이야.

화상 통화로 서양인과 회의를 하는 브라이언 최. 휘파람을 불면서 컴퓨터로 주문을 넣는 브라이언 최.

조민형 (V.O.)

브라이언이 굴리는 펀드는 미국 투자 회사 거거든? 그러니까 미제.  
개가 주식을 사면? 주식시장에선 아메리칸이 사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  
개미들은 외국인이 샀다고 그러면 좋다고 따라오거든.

호텔 휘트니스 센터. 줄줄이 늘어선 러닝머신에서 걷고 뛰는 사람들. 그 앞에 붙어있는 티비에선 김승범이 진행하는 시황 분석 방송이 나오고 있다. “대산 토건에 외국인 자본 유입” 카메라, 마지막 러닝머신에 도착하면 브라이언 최가 뛰고 있다.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달리는 브라이언 최.

조민형 (V.O.)

이걸 두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지.

#### 74. INT. 뚝살동 - 밤

브라이언 최의 ‘검은머리’에서 서서히 zoom되는 카메라. 브라이언 최는 아가씨를 끼고 호탕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 카메라 점점 멀어지면 테이블 양쪽에 조민형과 장현수가 앉아있다.

브라이언 최

(조민형과 하이 파이프를 하며) Hey baby!  
일주일 만에 forty percents 뛰었어. Am I good or what?

조민형

그래. You're the man. (장현수를 보며 의기양양하게) 봤지?  
이게 프로들의 숨씨라는 거다.  
(아가씨들에게) 야 니들 좀 잠깐 나가 있어봐.

아가씨 1

왜? 오빠? 무슨 재미있는 얘기하려고? 같이 듣자.

브라이언 최

Hey bitch. 나가라면 나가. 어차피 더블 뛰니까 좋잖아.

입을 삐죽이며 나가는 아가씨1. 나머지 아가씨들도 줄줄이 나간다.

브라이언 최 (계속)

Fucking bitch. 주회 재는 우리 방에 들어오면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재 우리한테 얘기 들으면 바로 가서 주식 사는 거 알지?  
So, what do you wanna talk about?

조민형

이제 오늘 만큼 올랐으니까. 통정으로 끝을 봐야지.

브라이언 최

A ha. matching transaction, I love it.

(현수를 가리키며) Can you handle it?

장현수

뭐라는 거야?

조민형

통정거래라고 들어봤어?

장현수

물론 들어 봤지.

갑자기 맥주잔에 양주를 따르는 조민형. 반 정도를 채운다.

조민형

들어본 거하고 해본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 하자고...

이제 나는 브라이언한테...

(잔에 양주를 조금 더 부으며) 가격을 좀 붙여서...

(잔을 브라이언에게 넘긴다.) 파는 거야.

양주가 가득 든 맥주잔을 받아서 원샷하는 브라이언 최, 다 비운 맥주잔에 다시 양주를 채운다. 아까보다 더 많이 채워지는 술.

브라이언 최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쯤~큼 더 붙여서

(현수에게 잔을 넘기며) you한테로 넘기는 거지.

잔을 받아들고 망설이는 현수. 하지만 조민형과 브라이언 최의 비아냥거리는 시선에 자존심이 상해 양주를 원샷한다. 빈 잔에 양주를 더 채워서 조민형에게 넘기는 현수.

조민형

그렇지! 그럼 넌 다시 나한테로 주식을 (한 번에 원샷) 넘기는 거야.

원샷한 조민형, 더 많은 술을 채워 다시 브라이언에게 넘긴다. 브라이언 최는 재미있다는 듯 술을 단숨에 비운다.

조민형 (계속)

이렇게 주식은 들고 들면서 가격만 계속 오르지.

그럼 재미들은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지. 그치?

(손가락을 저으며) 근데 살 수가 없어.

통정거래를 할 때는 거래량이랑 거래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거든.

브라이언 최

(현수의 눈앞에 손가락 스냅 딱!) 순식간에 사고파니까 끼어들 틈이 없지.

양주로 가득 찬 잔을 현수에게 넘기는 브라이언. 지기 싫은 현수는 억지로 원샷 한다. 오만상을 찌푸리며 술을 다 넘긴 현수. '너 이제 죽었다'는 표정으로 더 큰 잔을 찾는데... 조민형이 얼음통에 얼음을 내 던지고 내민다. 오케이... 얼음통 가득 술을 채우는 현수.

조민형

(실실 웃으며 얼음통을 끌어당긴다.)

주식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돌면서 가격이 원하는 만큼 왔잖아?...

갑자기 노크소리와 함께 아가씨 1이 고개를 빠끔 들이민다.

아가씨 1

오빠들 얘기 끝났어? 이게 뭐야. 너무 재미없다.

조민형

Okay! 너 들어와 봐.

애교를 떨며 사랑살랑 들어오는 아가씨 1.

조민형

(얼음통을 아가씨 쪽으로 밀면서) 우린 싹- 빠지는 거야.

이제 개미들은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던진 주식을 덩석 무는 거지.

왜 올랐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말이야.

브라이언 최

Pump and dump, baby!

조민형

(아가씨를 보며) 뭐하나? 원샷 해.

아가씨 1

어머, 오빠 미쳤어? 이걸 어떻게 원샷해?

지갑에서 백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는 브라이언 최.

브라이언 최

(수표를 흔들며) 너 원샷하면 내가 이거 준다.

얼음통에 가득 찬 양주와 수표를 보던 아가씨, 얼음통을 들고 원샷한다. 결국 사레드는 아가씨 1.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며 조민형과 브라이언 최는 킬킬거린다.

잔인한 장난에 질리는 현수.

조민형

(웃으며) 다 마셔야 준다잖아.

겨우 기침을 진정시키는 아가씨. 남은 양주를 비우려고 시도하는데, 현수가 통을 빼앗아 던져버린다.

브라이언 최

What the fuck?

장현수

대충 하자..

조민형

누가 강제로 먹였나? 지가 마신다잖아.

장현수

씨발! 그게 억지론 거 몰라?!

조민형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며) 그럼 다시 물어볼까?  
(아가씨에게) 야, 너 양주 원샷 다시 하면 두 배로 줄게. 이백.  
싫으면 말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아가씨의 눈빛. 현수는 그런 아가씨의 망설임에 더 화가 난다.  
조민형에게 주먹을 날리는 현수. 요란한 소리에 옆방에서 술을 먹던 이대리와 덕상이가 들어온다.  
현수를 말리는 덕상이.

조민형 (계속)

(톡톡 털고 일어서며) 병신 새끼...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든지.  
게으른 것들이 노력은 안하고 꼭 억울한 척 해...

조민형의 비아냥거림을 들은 현수, 덕상이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조민형에게 달려가 벽에 밀어붙인다.

장현수

너 같은 새끼들이 반칙하고, 사기 치는데 노력만 하면 돼?

조민형

(히죽거리며) 그렇게 정의로운 새끼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니?

자신도 모르게 먹살을 쫓는 현수가 풀리는 현수. 조민형은 현수의 손을 뿌리치고, 넥타이를 고쳐 맨다.

조민형 (계속)

통정거래는 시간이 생명이다. 칼같이 지켜.

## 75. INT. 브라이언 최의 사무실 / 헬스클럽 / 증권사 객장 - Montage

무선 헤드셋을 끼고 컴퓨터 앞에 앉은 브라이언 최.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초침이 똑딱 똑딱 흐른다.

브라이언 최

Ready, steady, and go!

키보드를 두드려 주식을 매입하는 브라이언. 화면이 분할되면서 초침이 흐르는 시계 클로즈 업.  
또 분할되면서 초침이 똑같이 움직이는 다른 시계의 클로즈 업. 또다시 화면이 분할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현수가 있다. 기운 없이 시계를 보는 현수, 초침이 정각을 가르치면 거의 동시에 키보드를  
두드리는 브라이언과 현수.

증권사 객장 전광판, 대산 토건의 주식이 계속 상한가를 기록한다. 만 구천 원... 이만 원... 이만 천  
원... 끊임없이 오르는 주식.

## 76. EXT. 골프 연습장 - 밤

한 밤의 텅 빈 골프 연습장. 황종구와 조민형이 나란히 서서 공을 날리고 있다.

황종구

슬슬 마무리 해야지?

조민형

내일이 현수 늬한테로 갈 차례야. 브라이언이랑은 말 맞춰 왔어.

황중구

이제 장차장 보고 싶어서 어떡하나...

조민형

내일이면 귀신같이 사라진 회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스윙을 돌리는 황중구.

### 77. INT. 버려진 헬스클럽 - 밤

천장을 보며 누워있던 현수. 매트리스 틈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면 준수의 메시지가 도착해있다.

INSERT: 휴대폰 화면 '대박인데! 네배 뛰었어! 보고서도 확인했어.'

휴대폰 플립을 닫고 긴 숨을 내쉬는 현수.

DISSOLVE TO

### 78. INT. 여의도 증권가 거리 - 아침

여의도의 아침풍경. 출근하는 사람들, 모두들 무언가에 쫓기듯 켜 발걸음이다.

### 79. INT. 버려진 헬스클럽 - 낮

벽에 걸린 시계와 모니터를 번갈아 쳐다보는 현수. 내키지 않는 표정이다.

조민형 (O.S.)

표정만 보면 무슨 대하소설 쓰는 줄 알겠다.

현수, 돌아보면 조민형, 한부장과 이대리가 어느새 들어와 있다.

조민형

뒤편. 저 새끼 당장 끌어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조민형을 돌아보는 이대리. 시키는 대로 하라는 한부장의 눈짓.

이대리는 현수를 자리에서 끌어내려한다. 순간 컴퓨터에서 USB를 뽑아 재빨리 일어서는 현수.

장현수

가까이 오지 마. 이거 없으면 거래 못하는 거 알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현수. 벽에 부딪히는 느낌에 돌아보면, 덕상이가 현수를 내려다보고 있다.

발버둥 치는 현수의 복부에 퍽- 하고 주먹을 꽂아 버리는 이대리.

한부장, 현수에게서 USB를 빼앗아 조민형에게 건넨다.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던 현수, 옆에 놓인 역기 봉을 잡고 일어선다.

다가오는 이대리를 향해 봉을 휘두르는 현수.

장현수



오지마! 오지마! 오면 진짜 친다!

현수. 붕을 휘두르며 공간을 만들다 겹싸게 샤워실 안으로 들어가 통유리 문을 잠근다. 안쪽으로 들어가 숨겨놓은 휴대폰 두 개를 꺼내는 현수. 두 휴대폰의 일 번 단축키를 꼭 누른다.

#### 80. INT. 재경부 앞 호텔 레스토랑 - 같은 시각 낮

유서연과 박창주는 재경부 인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유서연과 박창주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린다. 번호를 보고는 표정이 변하는 두 사람. 서로의 눈치를 본다.

유서연

그럼 두 분 말씀 나누세요. 전 먼저 일어날게요.

영거주춤 일어나는 박창주, 하지만 재경부 관리를 앞에 두고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한다. 안절부절 못하던 박창주.

박창주

아... 별로 할 말도 없는데... 담에 봅시다.

#### 81. INT. 헬스클럽 샤워실 - 낮

통유리 문이 박살이 나며 깨진다. 유리를 건어차며 안으로 들머서는 한부장 일당들. 샤워실 안에는 아무도 없고 창문만 열려 있다. 한부장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가스관에 매달려 있는 현수가 보인다.

한부장

애쓴다~

#### 82. INT. 버려진 헬스클럽 - 낮

이대리와 덕상이의 손에 붙잡혀 들어오는 현수. 조민형은 컴퓨터 앞에 앉아 거래를 하고 있다.

조민형

(무선 헤드셋) 오케이. 받았어. 수고.

(현수에게) 어떡하냐? 이제 너 필요 없다는데...

장현수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냐?

황종구 (O.S.)

장차장, 맘 상했어?

어느새 헬스클럽으로 들어와 뒤에 서 있는 황종구. 황종구를 발견한 현수, 황종구를 노려본다.

황종구 (계속)

소모품들은 원래 다 제때 갈아주는 거야.

#### 83. INT. 재경부 앞 호텔 레스토랑 주차장 - 낮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유서연. 어느새 박창주가 서연을 앞질러 걸어간다.

유서연과 박창주, 서둘러 각자의 차에 오른다. 렉서스와 벤틀리가 동시에 주차장을 빠져 나간다.

#### 84. EXT. 과천 거리, 서연의 렉서스 / 버려진 헬스클럽- 낮

서연, 한 손으로 거칠게 운전을 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유서연

(비서에게) 나야. 대신 계좌들, 잔고 확인하고 지금 바로 동결시켜!

INTERCUT: 컴퓨터 모니터 앞에 조민형과 황종구. 뒤에선 현수가 신나게 얻어맞고 있다.

조민형

(벌떡 일어나며) 백 오십구만 주. 다 넘어 왔어.

이때, 벨이 울리는 조민형의 휴대폰.

INTERCUT: 운전을 하며 다른 곳에 전화를 거는 유서연.

INTERCUT: 발신자를 확인한 조민형, 웃으며 휴대폰을 황종구에게 보여준다.

한부장에게 침묵을 지시하는 황종구. 현수의 입을 틀어막는 이대리.

조민형

유평비! 안 그래도 전화 하려던 참인데... 지금 어디예요! 큰일 났습니다.

유서연

갑자기 무슨 소리에요?

조민형

지금 헬스장인데, 장현수 이 자식이 없어졌습니다.

주식을 딴 데로 빼들린 것 같아요.

유서연

장현수가 주식을 빼들었다고요? 어떻게요?

조민형

통정하기로 한 시간에 주식이 안 들어와서 와보니까 벌써 다 쟁겨서 없어졌더라고요!

황종구, 벽면 거울에 얼굴을 들이밀고 태연하게 피부를 만지며 통화를 듣고 있다.

조민형 (계속)

일단 난 회사로 들어가니까 유평비도 글로 오세요. 대책을 세워야죠.

그러고는 웃음을 참으며 전화를 끊는 조민형. 황종구, 이대리 손에 끌려 나가는 현수에게...

황종구

우리 장차장. 그동안 고생 많았어. 폭 쉬어...

#### 85. EXT. 외곽 순환 도로, 서연의 렉서스 - 낮

갓길에 멈춰선 서연의 렉서스.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조수석으로 던지는 서연.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전화기를 집어 든다.

#### 86. EXT. 건물 앞 주차장, 스타렉스 - 낮

덕상이는 운전대를 잡고 있고 뒷자리에 현수를 밀어 넣는 한부장과 이대리. 몸을 뒤틀며 반항하는 현수. 이대리가 옆구리를 가격한다. 빠직-하는 소리. 이상한 김새를 채 이대리 현수의 몸을 뒤져보면 박창주가 준 휴대폰이 나온다.

한부장

어쭈? (휴대폰으로 머리를 툭툭 치며) 니가 잔머리를 굴렸어야?  
세상에서 너만 똑똑하지? 그지?

#### 87. INT. 버려진 헬스클럽 - 낮

전화를 받는 황종구. 조민형은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부수고, 서류들을 파기하고 있다.

황종구

알았어. 확실히 마무리 하고 연락해.  
(전화를 끊으며) 팔값을 해요. 핸드폰을 숨기고 있었단다.

조민형

하여간 대한민국은 배신하는 놈들 때문에 발전이 안 돼요.

황종구

잠깐... 이 새끼 이거 혹시 박창주나 유서연하고 똥구멍 맞춘 거 아냐?

조민형

지들도 구린테가 있는데 신고할 수 있어?

황종구

주식 쥐고 있는 놈이 장땡이지. 대충 정리하고 가자.

크크거리며 승리에 도취한 황종구와 조민형.

#### 88. INT. 대산토건 사장실 - 낮

닥치는 대로 서류와 현금뭉치를 챙기고 있는 박창주. 휴대폰이 계속 울리고 있다. 짐을 챙겨 사장실을 나서는 박창주. 컴퓨터 모니터엔 '매도 주문이 체결 되었습니다'라고 적힌 팝업창이 남아있다.

#### 89. INT. 버려진 헬스클럽 - 낮

골프채를 들고 거울 앞에서 스윙 연습을 하는 황종구. 서류를 파기하던 조민형,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 황급히 자신의 노트북을 연다.

황종구

왜?

조민형  
만약에 장현수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박창주가 준거면...  
(얼굴을 감싸쥐고) 이런 씨...

황종구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어?... 주가가 왜 이래?

조민형  
육십 칠만주가 한꺼번에 풀렸어. 씨발...

황종구  
얼마? 어떤 새끼야 이거!

조민형  
우리 말고 이만큼 가지고 있는 인간, 대주주 밖에 더 있어?

황종구  
박창주... 이... 썩새끼!!

골프채로 헬스장 거울들을 부수며 악을 지르는 황종구.

#### 90. EXT. 외곽도로, 서연의 렉서스 - 낮

속도를 올리는 서연의 렉서스. 아슬아슬하게 다른 차들을 추월한다.

#### 91. EXT. 판교 공사장 뒤 야산 - 낮

먼발치서 담배를 뽀뽀 피우는 한부장과 칼을 들고 실실 웃고 있는 이대리. 그리고 우직하게 땅을 파고 있는 덕상이. 현수는 밧줄에 묶인 채 앉아있다.

이대리  
어이... 한 번 담그고 물어줄까? 그냥 물어줄까?  
개인적으론 일 번을 추천한다.

이때, 울리는 한부장의 휴대폰.

한부장  
네! 대표님.

#### 92. EXT. 올림픽 대로, 황종구의 에쿠스 - 낮

조민형은 운전을 하고 있고 조수석에 앉은 황종구, 전화기에 대고 악을 지른다.

황종구  
씨발... 대표는 무슨 얼어 죽을 대표야!  
성식아, 너 오랜만에 쥐새끼 하나 찾아야겠다.

#### 93. EXT. 판교 공사장 뒤 야산 - 낮

전화를 끊는 한부장.

한부장

야, 야스리, 여기는 막내한테 맡기고 내려가자.  
큰 형님이 당장 박사장 잡아오란다.

이대리

왜요?

한부장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대리

씨발 진짜! 영업상무가 낫지. 이게 뭘 좃지랄이야.

한부장

덕상이, 넌 이 새끼 확실하게 정리해라.

덕상이

예! 형님.

이대리, 땅을 파는 덕상이 앞에 사시미칼을 던진다. 산등성이를 내려가는 한부장과 이대리.  
혼자 남아 현수를 내려 보는 덕상이. 한 손엔 사시미, 한 손엔 삽이 들려져있다.  
땅을 파기 시작하는 덕상이.

장현수

덕상아. 이러지 마...  
지금 사람 죽이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라고!

계속 땅을 파는 덕상이.

장현수 (계속)

건달 막내 그만하고 주식한다며? 내가 다 가르쳐줄게.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야지!

무표정으로 현수를 내려다보던 덕상이. 삽을 현수 옆에 꽂는다. 아무 말 없이 밧줄을 잘라준다.

장현수

그래 생각 잘 한 거야. 물론 조직을 배신한다는 생각에 겁도 나겠지만...

역시 대꾸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덕상이.

덕상이

유평비님. 전데요... 여기가요... 아 벌써 오셨어요?

놀라서 덕상이를 쳐다보는 현수.

덕상이

저기... 유평비님이 절 스카우트 하셨거든요.

장현수  
그럼 땅은 왜 판 거야?

덕상이  
형님들 내려갈 시간은 벌어야 하잖습니까.  
그리고요. 저 엄마랑 같이 사는데요.

#### 94. EXT. 으스스한 골목, 황종구의 에쿠스 - 밤

상기된 얼굴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조민형. 황종구가 옆에 앉아있다.

황종구  
어떻게 하루 만에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곤두박질을 쳐?

조민형  
내가 그랬잖아. 대주주가 던진 회사주식을 누가 갖고 있겠냐고?  
(버럭) 이제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다 팔아!

황종구, 조민형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잡더니 확- 끌어 내린다. 운전대에 얼굴을 갖다 박는 조민형.

황종구  
(넥타이를 조르며) 어이. 조민형이. 대접 좀 해주니까 뵈는 게 없지?

조민형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 넥타이... 넥타이 좀...

조민형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조민형을 내려다보던 황종구. 다른 손으로 휴대폰 폴더를 연다.

황종구  
아이 씨.. 이 새끼랑은 진짜 안 얹어려고 그랬는데...

#### 95. INT. 기원 - 밤

담배연기 자욱한 기원. 카메라, 바둑판을 두고 마주 앉아있는 아저씨들을 스쳐지나가며...

황종구 (V.O.)  
대한민국 작전 일 세대고 망친 작전 복구하는 데는 독보적인 인물이야.  
손대는 종목마다 꼭 자살하는 개미가 나와서 주식 살인마라고 하지.

조민형 (V.O.)  
(놀라는 목소리) 지박사?

황종구 (V.O.)  
너도 증권쟁이니까 들어본 적은 있지?

조민형  
그 사람을 알면 왜 처음부터...

황종구

이 새끼는 선금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요. 단가도 세고...

황종구와 조민형이 왜소한 오십대 사내, 지박사 앞에 선다.

하지만 지박사는 황종구 일당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바둑에 열중한다. '주식 살인마'라는 별명에 안 어울리는 유순한 인상이다. 맞은편엔 초등학생이 심각한 얼굴로 바둑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박사

귀 꼭사궁은 무조건 죽음이여. 돌 던져.

## 96. EXT. 판교 공사장 뒤 야산 - 밤

터덜터덜 야산을 내려오는 현수와 덕상이. 서연이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다.

장현수

(덕상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유서연

현수씨만 믿고 있을 순 없잖아요.

장현수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유서연

현수씨한테 준 핸드폰, 위치 추적 되는 거예요. 일단 가면서 얘기하죠.

## 97. EXT. 외곽도로, 서연의 렉서스 - 밤

질주하는 렉서스. 덕상은 서연의 거친 운전솜씨에 겁을 잔뜩 먹은 모습이다.

유서연

계좌 다 확인해 봤어요. 아무것도 없더군요. 다 빼들었어요.

장현수

알고 있는 얘기 다시해서 뭐 합니까. 그만 합시다.

유서연

박사장을 너무 간과 한 거예요. 물려받은 회사 다 알아먹고 작전재료로 쓰는 한심한 작잔건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 보다 훨씬 쓰레기였던 거죠.

현수에게 PDA를 보여주는 유서연. 박창주의 부채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메일.

유서연 (계속)

도박 빚만 수십억 이예요. 최근에는 마카오에서 진 빚 받으러 중국에서 조직까지 들어온 모양이예요.

서연은 허탈한 듯 웃는다. 서연이 내미는 PDA를 외면하는 현수.

장현수

재미있어요? 난 죽을 뻔 했다고요!

유서연

황종구도 지금 황당하겠죠.  
기껏 빼들었는데, 현금화 하지도 못하고 폭락했으니까.

참담한 표정으로 차창 밖을 바라보는 현수.

유서연 (계속)

시작할 때 담보로 잡아놓은 주식이 있어요.  
사실 황종구쪽 모르게 매집해둔 물량도 있고요.

장현수

(심드렁하게) 그러시겠죠.

유서연

분명히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털기 위해서  
무슨 식으로든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그 타이밍에 우리가 먼저 팔 수만 있으면...

장현수

다들 제 주머니 채우기 바쁘셨네.  
잘난 분들끼리 뒤집든 얹어 치든 잘 해보세요.

갑자기 길 한가운데서 급정거를 하는 서연. 따라오던 차가 경적소리를 울리며 간신히 스쳐지나간다.

유서연

날 때부터 작전한 사람 있냐고 큰소리친 현수씨 아니었어요?  
일이 될 것 같을 땐 붙더니, 틀어지니까 갑자기 무고한 피해자다?

장현수

당신들이 벌린 일이야. 왜 나한테 뒤집어씌우는데!

유서연

그래서 동생 불러서 대신주식 사라고 했나요?

할 말이 막힌 현수, 서연을 쏘아보다 확- 차에서 내린다.  
갓 길을 따라 무작정 걸어가는 현수. 서연이 뒤에서 따라오며 소리친다.

유서연

현수씨 돈도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현수씨 이번에도 전부를 걸었잖아요!

장현수

깡통 처음 차보는 거 아니네요.

유서연

사람 잘못 봤네요.  
이정도 밖에 안 되는 줄 알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장현수



(휙 돌아서서) 아.. 그래요? 하찮은 목숨 구해줘서 고마우니까,  
뭐 사해금이라도 드려요? 얼마? 십억? 백억?  
아니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난 개털인데?  
어쩌다 돈 안 되는 일을 다 하셨을까?

현수의 뺨을 때리는 서연. 길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트럭. 침묵.

장현수 (계속)

미안해요. 구해준거... 고맙게 생각해요. 진짜로.  
하지만 더 이상 누구 손에 놀아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유서연

현수씨를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현수

목숨 걸고 돈 벌 생각 없습니다.

유서연

알았어요. 일단 차에 타요.

차안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는 현수와 서연. 뒷자리의 덕상은 바짝 얼어있다.

## 98. INT. 기원 - 밤

나란히 앉아있는 조민형과 황종구. 맞은편에 지박사가 앉아있다. 얇고 긴 담배를 맛있게 빠는 지박사.

지박사

물린 게 얼마나 됩니까?

조민형

백 오십구만 주 정도... 오늘 종가 이만 오백 이십 원입니다.

지박사

차트 봤는데 분위기는 좀 아쉽니다. 뭐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더 한 것도 해봤고... 문제는 이게 손이 많이 가서...

말을 끊고, 담배를 끄고, 새 담배에 불을 붙이는 지박사.

황종구

바로 일 시작 하는 걸로 하고, 깔끔하게 십억으로 끊읍시다.

바둑돌을 잘그락거리던 지박사. 옆에 있는 냅킨에 뭔가를 끼적거리던 자리에서 일어난다.

지박사

결정되면 전화하십시오.

일어서 나가는 지박사. 황종구가 냅킨을 살짝 뒤집어 보고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는다.  
조민형이 냅킨을 집어들면... 휘갈겨 쓴 글씨. '50'

## 99. EXT. 과천 주공 아파트 단지 주차장 - 새벽

현수 어머니의 파천 주공 아파트 주차장. 서연의 렉서스가 멈추고 현수가 내린다.

장현수

잠시 만요. 즐겁게 있어요. 지금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CUT TO

츄리닝 차림에 잠이 덜 깬 준수가 서류를 들고 입구로 나온다.

장준수

웬일이야? 형이 집엘 다 오고? 지금 몇 시야?

장현수

일이 꼬였어. 그동안 모은 돈 다 날렸다.

장준수

왜! 뭐가 잘못 된 건데?

장현수

왜긴 왜야. 대신 폭락했어. 전부 휴지조각 됐다고!

큰 충격을 받은 듯 바닥에 주저앉는 준수.

장현수 (계속)

준수 니가 이렇게까지 형을 위하는지 몰랐다. 일어나.  
씨발... 형 이걸로 죽지 않아.

장준수

형... 엄마... 아파트...

장현수

그게 뭐 소리야?

장준수

엄마... 아파트... 담보로...

장현수

뭐?! 똑바로 좀 얘기해봐!

장준수

형이 하도 확실하다고 그래서... 엄마 몰래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아서...  
주식에 다 넣어버렸어.

동생의 말을 믿을 수 없는 현수는 절로 고개가 젓혀진다. 현수는 그제야 아파트 창문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현수모와 눈이 마주친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현수.

CUT TO

현수, 손에 들린 연구 보고서. 현수는 결심한 듯 서연의 차로 걸어간다. 차에 다시 타는 현수.  
서연은 눈치를 살피다 입을 열려는데...

장현수  
가죠.

**100. INT. 미분양 사무실 - 새벽**

아직 임대되지 않은 텅 빈 사무실. 파티션 하나 없이 넓은 공간에 책상 하나 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조민형. 퍽! 퍽! 고기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움찔한다.  
의자에 온몸이 묶여있는 박창주. 때리다 지쳐 숨을 몰아쉬는 이대리.  
인상을 쓰고 지켜보고 있는 조민형. 그들 뒤로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황종구.  
그 옆에는 김승범이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있다.

박창주  
황사장, 한 번만 좀 살려줘.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조민형  
(노트북을 보며) 계좌에 칠억 남았어. 씨발놈...  
도대체 도박 빚이 얼마였던 거야?

황종구  
한심한 새끼. (김승범에게) 어이, 피부 좋은 양반.  
당신도 내일까지 먹은 거 다 토해 내는 거야.

김승범  
네!

이때, 한부장이 브라이언 최를 데리고 들어온다. 피떡이 된 박창주를 보고는,

브라이언 최  
What the fuck!!

황종구  
왔냐. 브라... 너 한국이름 뭐야?

브라이언 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최... 흥만이요...

황종구  
(기가 막힌 듯 웃으며) 흥만아, 너도 받아 처먹은 돈 다 토하자...  
씨발, 그래도 비잖아...

조민형  
지박산 좀 안 깎아 줄까?

황종구  
씨발... 돈이 깡패다. 지박산지 개박산지 불러라. 끝내자.

박창주에게 침을 뱉! 빨고는 돌아서 나가는 황종구.

**101. EXT. 유서연의 사무실 지하 주차장 - 새벽**

차에서 내리는 유서연과 현수, 그리고 덕상이.

유서연

덕상씨 이제 잠시 몸을 숨기고 계세요.

쭈뼛거리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덕상이.

유서연

일 마무리 되는 대로 꼭 연락드릴게요.

덕상이

알겠습니다.

꾸벅 인사하는 덕상이.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힌다.

## 102. INT. 유서연의 사무실 - 아침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서연. 현수는 서연의 비서가 여벌로 놓아둔 양복으로 갈아입는다.

장현수

이젠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아까 얘기한 때도 타이밍...  
잡아낼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유서연

반 이하죠. 알아요. 그래도 이 방법밖엔 없어요.  
타이밍 잡아내는 건 자신 있다고 했죠?

장현수

잡을 수 없다면, 우리가 타이밍을 만들어야죠.

윤박사의 연구 보고서를 내놓는 현수. 보고서를 받아든 서연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다.  
서류철에서 똑같은 보고서를 꺼내는 서연.

유서연

이 보고서 얘기 하는 사람은 현수씨가 처음이네요.

장현수

근데 왜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유서연

이런 일에선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장현수

그거예요. 그쪽은 주가어나 신경을 쓰지 연구자체엔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문제는 항상 돈이죠. 적지 않게 들어갈 겁니다.

유서연

(일어서며) 현수씨,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 103. EXT. 명동 빌딩 옥상 하늘정원 - 아침

옥상에서 열리는 엘리베이터. 현수의 눈앞에 단정하게 조경이 된 한국식 정원이 펼쳐진다.  
서연은 현수를 시야가 탁 트인 평상으로 안내한다.  
평상에선 백발의 노신사, 전주투신이 전통차를 우려내고 있다.  
전주투신은 서연과 현수가 다가가도 차 우려내는데 여념이 없다.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은 서연과 현수. 그제야 전주투신은 현수를 제대로 쳐다본다.

FLASH BACK: 씬 9. 현수가 집은 주식서적의 표지. 표지의 신사는 전주투신의 젊은 모습이다.

장현수

아니... 혹시 난 이렇게 십억을 벌었다 그 책 쓰신 분... 아녘니까?

전주투신

절판 된지 십년도 넘었을 텐데...  
그 책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다 있군.

장현수

제가 그 책으로 주식을 배웠습니다.

전주투신

그래?... (미소가 사라지며) 그렇다면 헛배웠군.

갑자기 싸늘한 전주투신의 반응에 머쓱해지는 현수.

전주투신 (계속)

기왕 왔으니 차나 한 잔씩들 하지.  
박명인이 이번에 보내준 승설이 아주 일품이야.

기품 있는 동작으로 차를 권하는 전주투신. 현수는 얼결에 잔을 받는다.

전주투신

겨울 지나 초봄에 잎이 채 되기 전 작은 싹을 차움이라고 하거든.  
너무 작아서 대나무로 만든 족집게로 따야 되는데,  
열 명이 하루 종일 따야 오십 그람이 나올까 말까 하지.  
그 움들을 가마솥에 튀고 말리는데, 적어도 열다섯 번은 반복하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차가 이 승설이야. 언제 마실 만한가?

장현수

(한 모금 마셔보고) 잘 모르겠는데요.

전주투신

솔직해서 좋군. 이 작은 통이 한... 이백 오십 만 원 정도 하지.  
내가 왜 승설만 고집하는지는 아나?

장현수

녹차 마니아십니까?

전주투신

(빙그레 웃으며) 아니. 나도 맛은 잘 몰라.

장현수

네? 근데 왜...?

전주투신

난 그럴 수 있으니까. 귀한 것엔 다 제 값이라는 게 있지.  
(유서연을 보며)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질세.

얼굴이 굳는 서연.

전주투신 (계속)

긴장할 것 없네. 이정도로 실망할 거면 자네에게 말기지도 않았네.

장현수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CUT TO

명동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하늘정원.

보고서를 내려놓는 전주투신. 현수의 눈을 바라보는 전주투신의 얼굴에서 천천히 미소가 피어오른다.

전주투신

내가 이런 계획에 비싼 값을 치를 사람으로 보이냐?

장현수

네. 왜냐하면... 어르신은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 104. INT. 미분양 사무실 - 아침

텅 빈 미분양 사무실. 커다란 여행용 가방 가득 들어있는 만 원권 지폐.

가방 문이 닫히면서 황종구와 조민형의 굳은 얼굴이 보인다.

맞은편에 앉은 주식살인마 지박사의 만족스러운 표정.

황종구

(살짝 비꼬며) 세보시죠?

지박사

맘에 안 들면 저랑 일 안하시면 됩니다.

황종구

누가 안한답니까.

지박사

저번 달에도 한 팀이 설거지 해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예전에 데리고 있던 아인데,

지가 주포로 하나 엮는다고 설치다가, 코 빠트렸지.

형님, 형님 하면서 일단 처리 해주면 지분 쟁겨 주겠네 어찌네 해서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그 주식, 지금 백 팔십 원 갑니다.

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황종구  
네... 그제 박사님만 믿죠.

지박사  
오늘까지 하친게 며칠 쯤니까?

조민형  
이틀입니다.

지박사  
어차피 당장은 기술 걸어놔야 먹히지도 않습니다.  
빠질 놈들 다 빠지면 합정을 파서 한 번에 다 털고 나갑시다.  
하따 아십니까?

조민형  
하한가 따라잡기 말입니까?

지박사  
인생 막차 탄 재미들이 하는 것이죠.  
바닥을 친 주식은 반드시 다시 오른다고 믿는 바보심리.  
그걸 이용 하는 거죠. 내일 장 열리면 가라로 매수 예약을 넣을 겁니다.

황종구  
하락장에서 허수주문이라... 쉽지 않을 텐데...

지박사  
그래서 설거지가 작전의 꽃 아닙니까.  
바닥인줄 알고 사는 사람들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기묘한 소리로 웃는 지박사.

#### 105. EXT. 윤상태 박사의 연구소 외부 - 낮

수질 연구용 대형수조 사이를 걷는 현수와 서연, 그리고 윤박사.

장현수  
박창주 사장이 자기 주식을 다 팔고 나가는 바람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서 죄송합니다.

윤상태  
그렇습니까... 그 친구 참... 뭐 사정이 있었겠죠.

장현수  
그래서 박사님의 보고서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유서연  
이제 와서 연구를 멈출 순 없잖아요. 방법은 이거 하나예요.

서연을 돌아보는 현수.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 꿀꺽 삼킨다.

윤상태

주식은 잘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연구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잠시 침묵) 하시자는 대로 하죠.

의연하게 앞서서 걷는 윤박사. 현수는 윤박사의 뒤를 조용히 따른다.

#### 106. EXT. 외곽도로, 서연의 렉서스 - 낮

끝물이 생각에 잠긴 현수. 서연은 운전을 하고 있다.

장현수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걸 공개하느냐 데... 문제는 신문이나 뉴스를  
곧이곧대로 믿을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유서연

증권가에선 극소수를 위한 정보라인이 따로 있어요.  
짜라시라고 들어봤죠?

장현수

사실 정보지요? 증권사 가면 주는 거?

유서연

그런 거랑은 급이 틀리죠. 어떤 건 받아보는 데만 몇 백이 넘어요.  
정보는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휴대폰을 여는 서연. 현수에게 썩웃 웃어 보인다.

#### 107. EXT. 서연의 사무실 빌딩 앞 - 낮

빌딩 입구에서 멈추는 서연의 렉서스. 현수 내린다.

유서연

혼자서 움직이는 거 괜찮겠어요?

장현수

걱정 말아요. 서연씨 계속 저쪽 움직임을 체크해줘야 돼요.

유서연

알았어요. 조심해요.

건물로 들어가는 서연의 렉서스.

#### 108. INT. 미분양 사무실 - 낮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등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모니터를 보던 지박사. 고개를 갸웃거린다.

황종구

뭐가 잘못 됐습니까?



지박사

허수주문은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사겠다는 인간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이거 뭐가 있는데... 어디 쯤 좀 봐야겠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키보드를 두들겨 메일을 열어보는 지박사.

INSERT: 컴퓨터 화면: 한솔 환경 공학 미국 특허 취득. 향후 장기간 로열티 수입 기대.

황종구

이건 또 뭐 소리야?

지박사

애네 들 정보는 확실합니다. 옛날 안기부 애들이 하는 거죠.  
내일이면 뉴스로도 나올 겁니다. 일이 쉽게 풀리는군요.

조민형

그럼 이게 진짜 되는 거였단 말이야?

#### 109. INT. 여의도 거리 / 서연의 사무실 - 낮

블루투스 헤드셋을 착용한 채, PDA로 주가를 확인하고 있는 현수. 그래프가 반등하고 있다.

장현수

이젠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믿을 것 같아요.

INTERCUT: 컴퓨터를 보며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서연.

유서연

(웃으며) 원하는 대로 하한가는 풀었어요.

장현수

이제 무조건 사들여야죠.

유서연

그러다 저쪽에서 다 팔고 나가면.

INTERCUT: 거리를 바쁘게 걸으며 계속 통화하는 현수.

장현수

계속 오르는 그림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유서연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 110. INT. 미분양 사무실 - 낮

컴퓨터를 놓고 나란히 앉아있는 지박사와 조민형, 그리고 황종구.

지박사

자, 털고 나가죠.

조민형

잠깐, 잠깐. 지금 막 오르기 시작한 주식을 팔자고요?

지박사

난 계약에 없는 일은 안 합니다.

조민형

이런 대형 호재가 터졌으면 판 다시 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박사

당신들 주식이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안팔 거면 난 빠지겠소.

황종구를 돌아보는 조민형. 모니터를 노려보며 고민하던 황종구.

황종구

장 마감까지 한 번 보자.

지박사

그럼 알아서들 하십시오.

자신의 양복 상의를 챙겨서 사무실을 나서려는 지박사.

황종구

어이 박사양반, 나갈 거면 돈은 토해놓고 가야지.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지박사

(코웃음) 양아치 본성 나오네. 이 동네 환불 없는 거 몰라?

황종구

양아치? 성식아. 우리보고 양아치란다.

한부장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어느새 지박사의 손에 22구경 리볼버 권총이 쥐어져 있다.

황종구 (계속)

이건 또 뭐야?

지박사

독고다리로 뛰면서 보험도 없을 줄 알았어?

황종구

가지가지 한다.

지박사

어떤 새끼든 한 발짝만 움직이면 바람구멍 내주겠어.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는 대치상황. 서서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지박사.

황종구

가라. 가는데 너 이걸 알아둬.

앞으로 평생 십 원 한 장 쓸 때마다 뒤통수 조심해야 될 거야.

씩 웃으며 총구와 시선을 황종구에게 고정한 채 사무실 문을 여는 지박사.  
문이 열리면 쇠 파이프를 들고 있던 이대리가 지박사의 머리를 후려친다.  
적소리도 못하고 쓰러지는 지박사. 그 바람에 권총은 황종구의 발치에 떨어진다.  
재빨리 권총을 주워 지박사에게 겨누는 황종구.

**황종구 (계속)**

이 개새끼. 너 이 새끼 죽었어! 좀 일으켜봐.

쓰러진 지박사를 붙잡아 일으키는 이대리. 하지만 지박사는 축 늘어져 있다.

**이대리**

어? 형님. 이 새끼 진짜 죽었는데요?

지박사의 고개를 잡고 들어보는 황종구. 손을 놓자 다시 고개를 떨어뜨리는 지박사.

**황종구**

아 씨발... 짜증나네...

**조민형**

진짜... 죽었어?

이대리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황종구.

**황종구**

이 멍청한 새끼야! 그냥 죽이면 어떡해?

내 돈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죽여도 죽여야 될 거 아냐!

## 111. INT. 버려진 헬스클럽 / 유서연의 사무실 - 낮

난장판이 된 헬스클럽에 발을 들이는 장현수. / 컴퓨터를 계속 주시하는 서연.

**유서연**

곧 장 마감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조용하니까 더 불안한데요.

**장현수**

계속 오르니까 고민 꽤나 되겠죠.

트레이너 실에 들어가 간이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서류를 찾아 챙기는 현수.

**유서연**

황사장, 욕심이 과하네요.

**장현수**

누군 안 그런가요.

헬스장 바닥에 땀기쳐진 모니터와 부서진 컴퓨터를 바라보며 계속 통화하는 현수.

**장현수 (계속)**

그리고 보니 조그만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오년을 살았어요.

다르게 살았다면 적어도 세상이 이 모니터보다는 넓었을 텐데...

### 112. INT. 미분양 사무실 - 낮

지박사의 시체를 구석에 눕혀놓고 주식거래를 계속 하는 황종구 일당.  
조민형은 신경이 쓰이지만 황종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조민형

저. 뭘로 좀 덮기라도 하지.

황종구

응? 넌 저거 신경 쓰지 말고 (모니터를 두드리며) 이거 신경 써.  
분위기는 어때?

조민형

차트 분위기는 거의 삼일 연상 분위기야. 내일까지 가져가면 최소  
삼십억은 더 건져.

황종구

삼십억... 삼십억이라...

손바닥의 땀을 닦는 조민형. 팔까말까 망설이는 사이, 장종료 이 분전을 알리는 팝업창이 뜬다.

### 113. INT. 유서연의 사무실 / 여의도 한강 둔치 - 낮

63빌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여의도 한강 둔치. 서류를 든 현수가 걸어가며 통화를 하고 있다.  
장 종료 일 분전.

장현수

지금 팔아요! 십만 주!

유서연

지금요? 왜요!

장현수

막판에 못 팔게 하려면 지금 선수를 쳐야 돼요.

키보드를 두들겨 거래를 입력하는 유서연.

마포대교 밑에서 휴대폰을 닫고 벤치로 걸어가는 현수.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있는 뒤통수만 보이는 사내. 현수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는다.

### 114. INT. 미분양 사무실 - 낮

십만 주 매도 주문과 함께 장이 종료되는 조민형의 모니터.  
조민형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뱉으며 머리통을 부여잡는다.

황종구

왜 그래?

조민형

막판에 십만 주나 매도가 나와서...

황중구

삼일 연상 그림이라며! 갑자기 십만 주가 왜 나와?

조민형

괜찮아. 분명히 내일도 올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내일 팔면 돼.

황중구는 조민형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다. 지박사의 시체 쪽으로 조민형의 고개를 돌리는 황중구.

황중구

이봐, 조민형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보이지? 잘 하자.

#### 115. EXT. 서연의 사무실 빌딩 앞, 거리 - 밤

빌딩 입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현수.

장현수

응. 준수야.

장준수 (V.O.)

형. 오늘 좀 올랐던데 팔았어야 되는 거 아냐?

장현수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준수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엄만 자?...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긴 한 숨을 쉬는 현수. 입구 회전문을 열고 들어간다.

#### 116. INT. 미분양 사무실 - 아침

사무용 의자에 앉아서 불편하게 잠든 조민형. 팩스 벨 소리에 화들짝 깨어난다.  
종이를 뱉어내는 팩스. 사무실엔 아무도 없다. 팩스를 확인하는 조민형, 눈이 휘둥그레진다.  
팩스용지를 챙겨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는 조민형. 사무실 티비에선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뉴스 앵커

한솔 환경 공학의 윤상태 박사팀이 연구 개발 중인 수질 개선  
박테리아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한  
중견 건설기업과 합병 계약을 체결한 한솔 환경 공학은 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117. EXT. 미분양 사무실 앞 주차장 - 아침

한부장과 이대리는 황중구의 에쿠스 트렁크에 지박사의 시체를 싣고 있다.

황중구

야. 근데 사람이 빈다? 막내 어디 있어?

한부장

아직 안 왔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말입니다.

살짝 미간을 찌푸린 황종구에게 팩스용지를 든 조민형이 다급하게 다가온다.

조민형

유서연! 유서연이야!

황종구

뭔 소리야?

조민형

어제 십만 주! 막판에 십만 주 던진 게 유서연이라고!

황종구

어떻게 알았어?

조민형

지금 장판지를 받았는데. 어제 계속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

황종구

(조민형의 뒤통수를 치며) 그냥 얘기해! 뭘 물어봐!

조민형

(뒤통수를 어루만지며) 박원석이라는 사람이 대신을 집중 매입 했는데, 주소지가 전주시 금정동이야.

황종구

전주투신... 씨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조민형

유서연이 전주투신 돈으로 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게 확실해.  
이 물량들이 오늘 한꺼번에 나오면 우린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황종구

우리가 먼저 팔면 되잖아!

조민형

일초라도 먼저 주문을 넣는 쪽이 먼저지!

자동차를 발로 차며 화풀이를 하는 황종구. 잠시 생각에 잠긴다.

황종구

그 쪽에선 우리가 이걸 모를 거라고 알고 있던 말이지.  
지금 그 년만 잡아놓으면? 그 년이 거래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냐?

에쿠스에 오르는 황종구.

황종구 (계속)

묻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여의도로 가자!  
(조민형에게) 너도 타 씨발놈아!

#### 118. INT. 유서연의 사무실 빌딩 일층 로비 - 아침

복잡한 일층 로비. 황종구와 일당들이 출근 하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다.

**조민형**

(작은 목소리로) 저기! 온다.

서류가방을 들고 휴대폰 통화를 하며 출근하는 유서연. 황종구를 보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황종구**

우리 거래할 수 있게 챙겨 왔지?

**조민형**

(노트북 가방을 들어 보이며) 나까지 갈 필요 있어?

난 어디 딴 데서 주식 팔 준비를 할게.

**황종구**

내가 널 쫓 밟고? 웃기지 말고 붙어있어.

조민형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황종구와 일당들.

#### 119. INT. 유서연의 사무실 엘리베이터 -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황종구 일당.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리자, 황종구는 품에서 지박사의 권총을 꺼낸다. 총을 보고 겁을 먹는 조민형.

#### 120. INT. 유서연의 사무실 - 아침

유서연의 사무실로 쳐들어오는 황종구 일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서연이 아닌 현수다.

들이닥친 황종구를 보고 놀라는 현수.

**황종구**

이런... 쥐새끼...

급하게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려는데, 달려들어 모니터를 박살내는 황종구.

**황종구 (계속)**

뒤해! 이 새끼들아! 이 새끼 끌어내!

현수를 자리에서 끌어내 벽에 밀어붙이는 이대리. 장식장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지는 현수.

쓰러진 현수를 발로 차는 이대리. 사무실은 난장판이 된다.

**황종구 (계속)**

장차장... 명줄이 쓸데없이 길어.

바닥에 쓰러져서도 황종구를 노려보는 현수.

**장현수**

사다리 걸어차는 것도 모자라서 땅에 묻냐?

**황종구**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유서연! 유서연, 이 녀은 어디 있어?

화장실까지 뒤져보고 자리로 돌아오는 한부장.

한부장  
아무도 없습니다.

황종구  
뭐야?! 아까 엘리베이터 탔잖아! (현수에게) 유서연 어디 있어?!

장현수  
... 그렇게 어제 팔았어야지.

황종구  
뭐?

현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황종구.

황종구  
막판에 십만 주. 너지?

씩- 웃는 현수. 벽에 걸린 시계를 보는 황종구. 개장까지 십분 남았다.

장현수  
누가 주문을 먼저 넣는지 보자고.

## 121. INT. 유서연의 사무실 빌딩 스카이 라운지 - 아침

스카이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앉아있는 유서연.

## 122. INT. 유서연의 사무실 - 아침

부서진 컴퓨터와 서연의 책상을 뒤지는 조민형.

조민형  
(혼잣말) 인증서... 인증서 어디 있어?!

조민형, 정신없이 뒤지다가 책상위에 있던 메모를 발견한다.

INSERT: 서연의 메모. 한솔 환경 공학 미국 특허 취득. 향후 장기간 로열티 수입 기대.

FLASH BACK: 지박사의 이메일. 한솔 환경 공학 미국 특허 취득. 향후 장기간 로열티 수입 기대.

조민형  
이건...

장현수  
정보로 주식하는 놈이 제일 하수라며?  
뉴스는 안 믿어도 찌라시는 믿나보지?

사색이 되는 조민형.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현수를 노려보는 황종구.



장현수 (계속)

오늘 뉴스 보니까 대산토건 전망 아주 좋던데,  
사람만 묻지 말고 주식도 한 번 물어보지?

분을 못 참고 현수에게 총을 겨누는 황종구. 한부장 황종구의 손을 잡는다.

한부장

지금 여기서 총을 쏘면 못 빠져 나갑니다.

화를 삭이며 소파에 자리를 잡는 황종구. 손목시계를 본다. 개장 일본 전.

황종구

이... 씨발놈. 이거 끝나면 넌 내가 직접 끝내준다.

MONTAGE: 스카이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는 서연. 조민형도 서연의 책상에서 가지고 온  
노트북을 연다. 사무실에 앉자마자 HTS 프로그램을 여는 박지혁. 객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기를 안고 집에서 컴퓨터를 쳐다보는 주부... 바쁘게 주식시장 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  
조용히 차를 마시며 모니터를 주시하는 전주투신.

육초 전... 오초 전... 손을 뒤로 묶인 채 바닥에 앉아있는 현수. 초조하게 기다리는 황종구.

초침이 돌아 아홉시를 가르치자 조민형은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린다.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면,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뜨고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는 조민형.

조민형

됐다! 됐어! 팔았어!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는 황종구, 묶여있는 현수를 내려다본다.

황종구

아무리 발악해도 이기는 놈만 이기는 게 세상이야. 좇갈지? 이해해라.

장현수

이렇게 팔고 나가면... 금감원에서 가만히 있을 거 같아?

황종구

혐의 잡아놔야 조사하는 데만 기본이 한 달이야.  
그 정도면 돈세탁 하고도 남는 시간이지.

장현수

그래? 황사장... 기업가 다 됐네.

갑자기 황종구를 비웃는 현수. 뭔가 개운하지 않은 듯 점점 미소가 지워지는 황종구.

희심의 미소를 짓는 현수의 얼굴에서... 비트 있는 음악이 시작되면서 함께 들려오는 구둑발 소리.

123. EXT. 여의도 한강 둔치 - 밤

FLASH BACK: 벤치에 나란히 앉은 현수와 이재학 사무관.

이재학

정상참작이란 게 있겠지만...  
지금 얘기대로라면 현수씨도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장현수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협의 정리되는 대로 조민형과 황종구, 검찰에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현수씨도 나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현수

조사 끝날 때쯤이면 돈 다 해외로 빼돌렸을 겁니다.  
운이 나빠 잡힌다고 해도 형 잠깐 살고 나오면 감부가 돼 있겠죠.

이재학

협의를 따라서 추정금도 부과될 겁니다.

장현수

이 사람들이 추정금 무서워하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이재학

(답답한 듯) 그럼 어찌잔 말입니까?

장현수

거래 현장에서 잡는 겁니다.

이재학

언제 어디서 파는지 알아야 잡을 거 아닙니까?

장현수

(씩 웃으며) 작전이란 게 주식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죠,

#### 124. INT. 유서연의 사무실 - 새벽

FLASH BACK: 준수와 통화를 마치고

#### 125. INT. 유서연의 사무실 - 아침

사무실로 들이닥치는 이재학 조사관과 형사들. 당황하는 황종구와 조민형. 이대리는 저항해보지만 곧 바로 제압되고, 수갑이 채워진다.

#### 126. INT. 유서연의 사무실 빌딩 2층 로비 커피 전문점 - 아침

귀에서 무선 헤드 셋을 빼는 서연, 씩- 미소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서연의 노트북에 떠있는 화면은 주식 그래프가 아니라 서연의 사무실 CCTV 녹화 프로그램이다.

DISSOLVE TO

**127. INT. 유서연의 사무실 - 아침**

CCTV 화면이 사무실로 디졸브 되면서...

이재학은 현수의 포박을 풀어주고, 미소를 주고받는다. 수갑을 차고 있는 조민형 앞에 선 이재학.

**이재학**

조민형씨, 당신을 주가조작과 금융 실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황종구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재학 사무관.

**황종구**

나도 정식으로 합시다.

황종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습관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읊는 형사.

**형사**

당신은 변호사 선임과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황종구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어? 너 안산 독가스잖아? 너 이번엔 어려운 거 했다?

**황종구**

왜 강력계에서 나서고 지랄이야? 나도 엄연한 경제사범이야!

**형사**

그래 너 고상하다. 납치 살인미수도 경제활동이냐?

똥썩은 표정으로 현수를 쳐다보는 황종구. 현수 앞에 선 이재학 사무관.

**이재학**

현수씨도 검찰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흔쾌히 내미는 현수의 손목에 채워지는 수갑.

**128. EXT. 유서연의 사무실 빌딩 앞 거리 - 낮**

줄줄이 끌려나오는 황종구 일당. 폴리스 라인 너머로 구경꾼들이 몰려있고, 경찰 호송차들은 이미 대기하고 있다. 기가 막힌 듯 썩소를 짓는 황종구. 이재학은 현수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온다.

**경찰 1**

고형사님! 차 트렁크에 시체가 있습니다!

**형사**

(피식 웃으며) 어이구... 니가 그렇지.

얼굴이 일그러지는 황종구, 형사의 손에 떠밀려 경찰 호송차에 오른다. 호송차에는 이미 얼굴이 만신

장이 된 박창주, 김승범 그리고 브라이언 최가 앉아있다.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외면하는 황종구.  
호송차 창문을 통해 지막사의 시신을 꺼내는 경찰들을 보며 허탈한 조소를 짓는다.

**황종구**

그 새끼가 진짜 살인마다... 주식 살인마...

경찰 손이 이끌려 건물을 나오는 현수, 새로 온 호송차에 오르려는데...

**유서연 (O.S.)**

현수씨!

돌아보면, 폴리스라인을 넘어오는 서연. 서연을 제지하는 경찰관.  
휴대폰 통화를 하던 형사가 그런 경찰관을 제지한다. 현수 앞에 선 서연.

**장현수**

(웃으며) 도대체 못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유서연**

(마주 웃으며) 조금만 고생해요. 방법을 만들어 볼 게요.

**장현수**

기껏해야 집행유예겠죠. 화이트칼라 범죄잖아요.

다시 현수를 데려가는 형사. 호송차에 오르는 현수,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 풍경을 응시한다. 호송차가 출발하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수많은 고층빌딩들이 스쳐 지나간다.

## 129. EXT. 하늘정원 - 아침

FLASH BACK: 전주투신과 마주앉은 현수. 전주투신의 손에는 윤박사의 보고서가 들려있다.

**장현수**

윤박사의 연구의 잠재적 가치는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투신**

그래서?

**장현수**

지금이 오히려 살 때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시면 손실 보전은 물론이고 몇 배의 이익을 보실 겁니다.

**전주투신**

황가 놈들이 팔고 나가면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왜 지금이지?

**장현수**

그러면 그 놈들은 어르신 돈으로 평생 놀고먹겠죠.

**전주투신**

팔지 말고... 사라...

보고서를 내려놓는 전주투신. 현수의 눈을 바라보는 전주투신의 얼굴에서 천천히 미소가 피어오른다.

전주투신 (계속)

내가 이런 계획에 비싼 값을 치를 사람으로 보이냐?

장현수

네. 왜냐하면... 어르신은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 130. EXT. 여의도 거리, 호송차 안 - 낮

현수의 시선은 빌딩을 넘어 푸른 하늘로 향하고...

장현수 (V.O.)

열세 살부터 주식거래를 했다는 미국의 주식부자 워렌 버핏은 말했다.  
사람들은 서서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  
당장 다음 주에 복권에 당첨될 가망성에 더 큰 희망을 건다고.  
앞으론 나에게 투자한다! 종목이 하나밖에 없으니... 당연히 몰빵이다!

### 131. 유서연의 사무실 / 대학로 거리 - 낮

자막: 육 개월 후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유서연. 사치스럽게 차려입은 중년여자에게 투자 상담을 해주고 있다. 조금은 지친 표정. 휴대폰이 울리자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양복을 입은 덕상이가 중년 여자에게 커피를 가져다준다.

유서연

공연 언제부터야?

INTERCUT: 대학로 거리에서 연극 포스터를 붙이던 장현수. 옆구리에 포스터 두루마리를 끼고 유서연과 통화를 한다. 현수가 붙이는 연극 포스터는 어설픈 신파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장현수

내일 시작인데. 언제 올 거야?... 대사 있어! 사람 은근히 무시하네...

계속 통화하며 대학로 골목을 걷는 현수.

장현수 (계속)

초대권? 야... 있는 사람이 더 하다더니... 오지 마. 오지 마...

골목으로 꺾어져 인적이 드문 구석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현수.

장현수 (계속)

그래. 부자들 더 부자 만들어주느라 바쁠 텐데 끊어라. 수고...

전화를 끊고, 주위를 휘 둘러보는 현수. 비트가 강한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주차장에 세워진 매끈한 BMW M3에 오르는 현수, 전화를 걸며 시동을 건다.

장현수 (계속)

강지점장님. 한술 배달금 나왔다면서요? 내가 이번에 제대로 된 중소기업 하나 찾았는데, 거기다 딱 삼년만 묻죠.

BMW를 몰고 사라지는 현수. 현대 카드 씨엠송이 흥겹게 울려 퍼진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웃으면서 사는 인생, 자 시작이다~”

FADE OUT

THE END